

爲 先
爲 宗
爲 孫

第15號

2000年 12月 11日 月曜日

卞氏大宗報

草溪 密陽

발행인: 변규섭, 주간: 변대석, 편집인: 변상현, 변동석, 변재운, 변양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2번지 TEL: 02-2268-8947 2268-8067



永慕齋 경남 합천군 울곡면 갑산리

發刊辭

卞門의 先導로 大宗報가 다하기를

2000년의 한해도 이제 저무러가고 있는 오늘에 우리의 宗報가 宗史의 證人으로 우뚝서서, 宗親會의 發展을 재촉하고 있으니 더불어 살아 가는 昨今の 世界化時代에 우리 卞門의 情報와 指標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15호를 發刊하는 바입니다.

돌아켜보면 지난 1992年 1월에 延煥 前會長의 주선으로 創刊號에 이어서 10회의 發刊을 보았고, 鍾爽 前會長이 3회, 鍾喆 前會長이 1회의 發刊으로 모두 14회의 宗報가 發刊되었음은 참으로 뜻있는 業績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무를 맡아 애써주신 相鉉, 在會, 在運, 畧洙, 章燮, 在昌, 容圭氏등의 獻身的인 努力이 함께 하였음에 眞心으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宗報가 發刊됨에 있어 原稿를 投稿하여 주신 많은 一族과 宗婦님들께도 謝意를 表하면서 發刊된 宗報를 宗員 개개인에게 傳達되어 읽어 볼수 있도록 配付에 協助하여 주신 地域宗親會會長님들에게도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간의 宗報가 日刊紙 모양으로 되어서 保管上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宗

人들의 意見이 있었기에 앞으로 冊子 모양으로 發刊하여 普及코져 하오니 諒知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宗報가 보다 알차고 보람된 弘報紙가 되어 우리 卞門의 發展에 案內者가 되고 後孫에게 물려줄수 있는 값진 가르침이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宗人 여러분의 보다 많은 協助와 參與가 있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2000. 12.

大宗會長 卞圭燮

新年辭



卞氏大宗會 會長

卞圭燮

庚辰年을 보내고 辛巳年을 맞으면서 전국에 계신 一族 그리고 北쪽에 계신 一族과 해외에서 생활하고 계신 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초 이사람이 會長을 맡은지 1년이 지나고 2001年(辛巳年)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20世紀가 가고 21世紀의 새아침은 더 없이 벅차고 찬란한 大望의 아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가적으로는 統一의 서곡이 시작된 지난 한 해였고, 세계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世界化의 한마음이 되어가고 있으니 우리 卞門도 보다 밝고 희망찬 새해가 되어 長中季의 과벌의심도 불식하고 世界 속에 우뚝 서는 자랑스런 일족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융화 단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판이 당초에 卞氏中央花樹會로 시작되어 卞氏中央宗親會로 되었다고 卞氏大宗會로 된 그간의 많은 歷史的 業績이 卞氏大宗報에 실려 있으니 새롭게 펼쳐져 發展해 가는 우리 卞門의 새 歷史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가꾸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宗訓 三爲精神 祖上을 爲하고 宗中을 爲하고 子孫을 爲하자고 하였으니 不信과 反目은 다 떠내려 보내고 오직 和合과 相扶相助로 一致團結하여

첫째, 始祖公墓와 永慕齋를 성역화 하여 子孫들과 國民들의 崇祖精神 教育의 場으로 만들고, 둘째, 各 地域宗親會 단위로 恒久不變의 연락사무실 마련, 셋째, 子女의 장학사업인 장학회 구성.

이상의 三大 숙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10萬 일족이 다함께 한마음이 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새해 아침의 인사를 가름하는 바입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卞氏大宗會 理事會 開催

團합과 親睦으로

祖上을 빛내는 後裔가 되자

지난 10월 27일(음 10월 1일) 2000년도 始祖 文烈公의 享祀日 大宗會 理事會를 위시해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宗人 2백여명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始祖公 諱 庭實 할 아버지의 享祀를 되시고 失傳한 先祖의 享祀를 長仲季派별로 위패를 모셔 놓은 永慕齋에서 되시고 2時가 돼서 헤어졌다. 모두가 서로 明年에 또 만나자는 人事를 나누면서...

前날인 26일 오후 3시에 理事會가 永慕齋에서 개최되었는데 大宗會 圭燮 會長님은 인사말에서 모두가 健康한 모습을 보게 되니 반갑고 大宗會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협조하여 애써 주시니 고맙다고 하였다.

이어서 총무 仁燮氏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감사 秉永氏의 2000年度 決算 보고를 듣고 理事 全員이 승인하고 다시 圭燮 會長님의 주재하에 2001年度 예산안 심의를 하여 이 또한 理事 全원이 승인하였다.

그리고 故 卞五燮씨외의 부인 烈女 正명구 女史에게 烈女포상패와 卞永燮氏에게 始祖公 墓所入口 案内 表石을 건립하는데 대한 공로포상패를 수여하였다.

저녁식사 후 大宗報 發刊에 대한 설명을 편집을 담당한 相鉉氏가 冊子 모양으로 된 가편집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끝으로 明日의 祭官 分榜을 마치고 理事會를 폐회하였다.

편집실

2000年度 始祖公 享祀 및 卞氏大宗會 理事會 開催

2000년 1월 13일 번씨 대중회 임원 및 이사회를 서울 롯데월드 민속식당에 전국에서 임원 및 이사 30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圭燮 회장은 인사말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오신 선조의 덕업을 문중과 그리고 세상에 널리 전하여 자손만대에 법도가 되게 함은 후손된 도리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입니다. 족말이 금번에 이 중책을 수임 맡게 되어 열성의 자랑스러운 훈업을 널리 알려 자손의 긍지로 삼고 종친간의 단합과 친목의 장을 삼고자 從弟와 협의

하여 금1,400만원(會長 1000만원, 圭七 400만원)을 대중회 발전기금으로 협찬 합니다.

조상을 빛내는 뚜렷한 일을 해서 우리들의 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하여 다 함께 협력합시다.

협찬자

卞圭燮 會長	10,000,000원
卞圭七	4,000,000원
卞大碩 副會長	2,000,000원
卞元圭	" 2,000,000원
卞在會	500,000원



大宗會 理事會 觀景 2000. 1. 13.



始祖公 2000년 時享祭

※ 永慕齋 沿革(영모재 연혁)

- 1791(正祖.15.辛亥)-創建(창건)
- 1969(己卯)-營域擴張 및 墓碑建立(영역확장및묘비건립)
- 1980(庚申)-祭番 및 位土買入擴充

- (제단 및 위토 매입확충)
- 1985(乙亥)-齋舍 및 神道碑 建立(제사 및 신도비 건수)
- 1999(己卯)-記蹟碑 建立(기적비 건립)

대중보 발간위원회 개최

지난 3월 2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민속촌 몽촌식당에서 卞氏大宗報 發刊 委員會를 開催하였다. 번씨대중보는 1992년 1월 25일 廷煥전회장의 創刊 이후 8년이 경과되기 까지 鍾奭전회장과 鍾喆전회장에 의해 14회의 발간을 하여 대중회의 발전은 물론 종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제 圭燮 대중회장께서는 제15호를 발간하고자 宗보 발간위원회를 소집하여 발간 위원 13명을 선임하고 위원들의 협조와 성의를 당부하였다.

宗報發刊委員

- 委員長 圭燮 31세 서울
- 副委員長 大碩 27세 서울

- 委員 元圭 25세 경기
- 委員 東錫 31세 서울
- 委員 撤宗 28세 울산
- 委員 益圭 25세 부산
- 委員 相煥 28세 청주
- 委員 富源 29세 창원
- 委員 三龍 29세 대구
- 委員 宗柱 29세 보성
- 委員 圭成 30세 횡성
- 委員 在運 30세 인천
- 總무 仁燮 29세 합천
- 주간 大碩 27세 서울
- 편집 相鉉 28세 경기
- 東錫 31세 서울
- 在運 30세 인천
- 良洙 27세 경기

永慕齋 案内板文

27世 卞 秉 永

黃江(황강)이 흘러 靑龍(청룡)이 구불구불 에워 둘러 玉斗峰(옥두봉)을 이루고 龍德山(용덕산)의 神靈(신영)한 脈(맥)이 巽破氣勢(손과기세)로 배어 펼쳐진 壬坐向(임좌향)의 둔덕에 千餘年(천여년)의 世系(세계)를 이어온 草溪卞氏(초계번씨)의 始祖公(諱 庭實 諱 文烈 高麗成宗 985)(시

조공 휘 정실 시 문열 고려 성종 985)이 永慕(영모)의 神域(신역)에 후손들은 그 크나큰 陰德 門下侍中 八溪君(문화시중 팔계군)을 기리기 위하여 永慕齋, 龍德齋, 聚鳳堂(영모재, 용덕재, 취봉당)등 기타 부수시설과 儀物(의물)을 갖추었고 拾萬餘(십만여)의 血緣宗意(혈연종의)가 모여 求心塔(구

심탑)으로 쌓인 이 龜鑑(귀감)의 전당에는 崇祖(崇祖)의 고귀한 정신이 담백 배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綿綿(면면)히 昭穆(소목)은 鼎立(정립)되어 나라에 큰 공덕을 남긴 高官大爵(고관대작)의 후손들의 行蹟(행적)이 여기 神道(신도)의 빛들에 새겨져 있다.

또 산등 위로 우러러 보면 封築(봉축)의 빛들에도 長久(장구)한 宗史(종사)에서 繁榮(번영)한 후손들의 重臣文衡(중신문형)과 魏勳卓節(위훈탁절)의 功(공)을 정갈하게 銘(명)하고 있으니 爲先(위선)의 幸(행)을 포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울러 始祖公(시조공)의 歲一祭

(세일제)는 매년 음력 十月 초하룻날에 全國各地(전국각지)에서 후손들이 모여 엄숙히 奉行(봉행)되고 또 그 전날 大宗會(대중회)의 발전을 위한 事業(사업)의 決算(결산), 企劃(기획)과 歲祀分榜(세사분방)등 和合(화합)의 大宗理事會(대종이사회)를 겸하고 있으니 未來(미래)는 밝고 整然(정연)하다.

이곳을 찾는 後裔(후예)들이여!

뿌리의 源泉(원천)은 萬古不滅(만고불멸)의 빛이며 千載(천재)로 이어 繁昌(번창)할 宗門壯途(종문장도)에 謙虛(겸허)한 마음으로 받들고 頌祝(송축)할 지어다.



1999年度 享祀 光경



1999年 3月 23日 大宗會 理事會 겸 宗보발간위원회



2000年度 始祖公 享祀 光경 (1)



故 卞五嬖婦人 정명구 烈女 孝婦賞 授賞



2000年度 始祖公 享祀 光경 (2)



卞永度 功勞賞 授賞

卞氏 集姓村을 가다. ①

慶南 馬山市 合浦區 鎮田面

杜門洞 72賢의 한분

高麗忠臣 門下評理公 8世 諱 贊 誠久祠에 配享

■ 16世 進士公 諱 國秀께서 世居

馬山에서 國道를 따라 진주방면(晉州方面)으로 가다 보면 晉州와 통영(統營)으로 갈라지는 길이 나온다. 이곳에서 약4Km를 가다보면 國道(國道)를 사이에 두고 四方이 山으로 들어 쌓인 넓은 들과 큰 마을이 있다. 들과 강을 끼고 北쪽은 양촌리(良村里), 개양리(開陽里)이고, 南西쪽은 일암리(日岩里)이며, 東쪽은 동산리(東山里) 등 4개리가 있다. 이곳이 鎮田面 卞氏 集姓村이다. (옛 행정명칭은 晉陽郡 良田) 여기 시거는 草溪卞氏의 始祖 文烈公 휘(諱) 정실(庭實)의 13世 동복현감(同福縣監)을 역임하신 휘(諱) 온(溫)의 曾孫(증손)인 16世 진사공(進士公) 諱 國秀(國秀)께서 全南 장흥(長興)에서 婦人과 사별후(死別) 두 아들(栢, 竹)을 데리고 새 삶을 찾아 나섰을 때 풍수지리(風水地理)에 능한 동행 친구분이 바로 이곳이 명당이라고 집터와 피터를 잡아 주어 여장을 풀고 사시게 된 것이 마을의 유래(由來)로 전하여 오고 있다.



◇良村里 國道邊에 세워져 있는 世居地 標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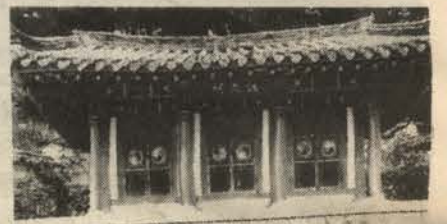
日岩里, 良村里, 東山里, 開陽里 등 4개 부락에 卞姓이 300餘戶가 살았었다. 그러나 70년대 산업화(産業化) 발전(發展)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게 됨으로 이 고장의 卞門들도 도시로 이주하여 지금은 150餘戶

가 살고 있으면서 성구사(誠久祠)를 받들고 충의정신(忠義精神)을 이어 오고 있다.

이 誠久祠는 日岩里에 위치(位置)하고 있으며 고려조(高麗朝) 문하평리(門下評理)(正二品)이신 8世 휘(諱) 빈(賓), 조선조(朝鮮朝)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추증(追贈)된 18世 휘(諱) 연수(延壽)와, 아들이신 좌승지공(左承旨公) 19世 휘(諱) 입(立)

세분 충신(忠臣)을 모시고 있다. 每年 음력(陰曆) 3月 중정일(仲丁日)에 우림(儒林)에서 춘향제(春享祭)를 모시며 거룩한 忠節을 기리고 있다. 陰曆 10月15日에는 門中에서 시향제(時享祭)를 모시고 있다. 또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八義士의 한분으로 추앙(推仰) 받으시는 28世 諱 상태(相泰)의 고향(故鄉)이다.

(天理)를 속인자들을 책망하였으며, 신위(神位)를 정절반(靖節班)에 제승배향(躋升配享)하였고, 비주향(肥酒香)을 올리니 음향 하시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다. 諱 빈(賓)은 표절실(表節室) 정절반(靖節班) 50位에 봉안(奉安)돼 있다.



誠久祠

● 18世 諱 연수(延壽)는 기사(騎射)에 능한 武士로서 훈련원 주부(訓練院主簿)가 되었는데 1592年(宣祖 25年)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아들 입(立)과 함께 창의(倡義)하여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휘하에서 여러차례 전공(戰功)을 세우다가 1597年 선조(宣祖)30年에 당포(唐浦)에서 父子가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선무원종(宣武原從) 2등(2等)에 서훈(敍勳)되고, 철권(鐵券)이 하사(下賜)되었으며 정여(旌閭)가命해졌다.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兵曹判書兼 知義禁府事)에 추증(追贈)되었으며 誠久祠에 配享되었다.

은 百姓의 의리(義理)로서 杜門洞 옛 사당(祠堂)을 새로이 단장하여 천리

(5면으로 계속)

■ 忠臣 先祖 세분 誠久祠에 配享

● 8世 諱 빈(賓) 무하평리공(門下評理公) 할아버지는 高麗末 門下評理로 (지금의 부총리에 해당 됨)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등과 나라를 걱정하다가 杜門洞에 함께 들어 가셔서 이성계(李成桂)에 항거(抗拒)하신 72賢 中의 한분으로서 추앙(推仰)을 받고 있다.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돼 있는 두문동서원지(杜門洞書院誌)의 門下評理 卞先生 봉안문(奉安文)에 의하면 선생의 諱는 빈(賓)이요, 貫은 草溪며, 대호군경(大護軍卿)의 아드님이요, 벼슬이 門下評理다. 고려국운(高麗國運)이 마치려하니 선생께서는 판서 성만옹(判書 成萬庸), 박사 정몽주(博士 鄭夢周), 제학 홍재(提學 洪載), 대사성 이색(大司成 李穡), 전서 김성목(典書 金成牧), 전서 조열(典書 趙悅), 진사 이오(進士 李午), 단구 김후(丹邱 金厚) 등과 함께 수시로 모여 술을 드시고 시를 읊조리며, 시국에 대하여 상심하고, 분개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선생께서는 은(殷)나라에는 세분의 어진이가 있었는데 비간(比干)은 죽고, 미자(微子)는 떠나고, 기자(箕子)는 종이 되었으니 각자 자신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자고 말씀하시니 모두가 그러자고 하였다. 홍재(洪載)는 삼가(三嘉)로 가고, 김후(金厚)는 상산(商山)으로 가고, 조열(趙悅)은 함안(咸安)으로 갔으나 선생은 두 문동에 돌아가셔서 은거하였다.

아 - 선생의 본관(本貫)은 초계(草溪)요, 지체 높은 가문으로 관직이 門下評理이다. 하늘이 무심하여 고려국사가 마치니 공께서는 당당하게 어느날 밤 동지를 초청하여 말씀하시고, 成萬庸도 말씀하시고, 洪載도 말씀하시고, 鄭夢周도 말씀하였다. 은(殷)나라에는 세분의 어진이가 있었는데 비간(比干)은 죽고, 미자(微子)는 떠나고, 기자(箕子)는 종이 되었으니 각자 자신들의 뜻에 따라 한다는 뜻을 말씀하시고, 자리를 과하시고, 기미를 보아 두문동천(杜門洞泉)에 기거하시며, 몸을 청결히 하여 남향(南向) 통곡 하시고, 종묘사직을 애통하시니 진정 선생은 忠義를 지키셨다. 나라 잃

은 百姓의 의리(義理)로서 杜門洞 옛 사당(祠堂)을 새로이 단장하여 천리

鳴呼先生草溪故家高麗評理皇天不吊國事已矣公堂 一夜招我同志日成日洪日鄭日李股有三仁比干則死 微去箕奴各自隨意言志既罷見幾而起杜門洞泉可以 灑已南望痛哭哀我宗社允矣先生罔僕之義洞舊廟新 雖誣天理躋享靖班清風千禩牲肥酒香庶歆禮祀	門下評理卞先生奉安文 并 贊 文 先生諱贊草溪人大護軍卿之子官門下評理 品正二 麗 運將訖先生與判書成萬庸博士鄭夢周提學洪載大 司成李穡典書金成牧典書趙悅進士李午丹邱金厚 不期而會把酒哦詩傷時慨惋垂泣而言曰股有三仁 比干死微子去箕子爲奴各自隨意行之皆曰諾洪載 歸三嘉金厚歸商山趙悅歸咸安而先生歸隱于杜門 洞
--	--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中인 杜門洞 書院誌의 索引番號 1937編에서 縮小 複寫한 評理公 奉安文.

21世紀 卞門의 테마



卞東錫
서울, 京畿宗親會 顧問

卞門은 위선(爲先), 위종(爲宗), 위손(爲孫)을 종훈(宗訓)으로 大宗會가 구성되어 중사를 받들어 온지도 어언 20여성상이 흘렀습니다. 숙원이던 영모재(永慕齋)의 이건중수(移建重修)를 하여 위용(威容)을 갖추었고 현안이던 대동보(大同譜)도 完成하여 한 뿌리 일체감(一體性)도 確立하였으며 始祖公 향사(享祀)도 每年 전국각지역(全國各地域)에서 많은 宗人들이 참여(參詣)하여 一門의 자긍심(自矜心)을

일깨워 왔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宗人名簿(全國宗人名簿)를 發刊하여 一族間, 地域間 消息 전파(傳播) 및 情報交流, 돈목(敦睦)과 發展을 기(期)하는 계기(契機)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一族의 노력(努力)과 협력(協力)으로 이제는 위선(爲先), 위종(爲宗)은 궤도(軌度)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영모재(永慕齋) 주위(周圍) 환경정비(環境整備), 부수시설(附隨施設) 및 주차장(駐車場)등 성역화(聖域化)를 추진하고 大尊會 사무실도 마련하여 21世紀 歷史의 흐름에 대처하면서 變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時代의 變化에 따라야

이제 우리는 새千年的 21세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21세기는 이미 知識情報化時代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價値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光速인터넷 사이버空間으로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는 인터넷 無線時代로 발전해나가면서 한 이웃이 되어 생존과 變영을 위해 경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정보기술은 날로 발전하여 신기술의 경쟁속에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일상 생활화된 휴대폰과 PC만 하더라도 새모델 출현의 경쟁으로 생존을 걸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창의적(創意的) 技術, 아이디어, 스피드, 경쟁력등이 특징(特徵)인 지식정보화시대에 창의력과 경쟁력이 없으면 개인이나 기업이건, 門中이나 사회이든 낙오 되고 말 것입니다. 영국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는 전략적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말 하였습니다. 새시대의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해 卞門도 失機 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역사적 테마를 깨달고 함께 名門으로 발전하고 變영해 나아가 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21세기를 향한 卞門의 테마는 영재육성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정상

(頂上)회의에서 2000년 ASEM 합의문 발표에 의하면 ASEM 장학기금 설정이 교육사회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재육성이 미래의 국가와 인류사회 變영에 얼마나 중요한 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英才育成에 힘 쏟아야

우리는 이제 위손(爲孫)에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卞門은 다른 門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모아 後孫들을 위한 영재 육성사업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卞門의 뜻있는 분들과 企業하시는 분들이 선도(先導)하고, 全一族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참여하는 장학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우수한 자손들에게 장학 지원하여 영재를 길러내는 사업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에는 씨앗 뿌리는 마음으로 소규모로 시작해서, 훗날 대규모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감히 제언(提言)합니다.



誠久祠경내 道山書院

● 19世 諱岬(입)은 1592年(宣祖 25) 壬辰倭亂때 아버지(延壽)를 따라 의병(義兵)으로 참군(參軍)했으나 父子가 함께 순절(殉節)했다. 정여(旌閭)가 命해지고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에 追贈되어 誠久祠에 배향(配享)되었다.

■ 朝廷에서 忠, 孝, 烈의 旌表 三綱閭 내리다.

三綱閭는 良村里에 位置하고 있으며 諱 延壽 할아버지의 위국충절(爲國忠節)과 아들인 諱 입(岬)의 효성(孝誠) 및 婦人 安東金氏의 烈의 三綱이 萬百姓의 귀감(龜鑑)이 되므로 朝廷에서 三綱閭의 旌表가 내려졌다. 諱 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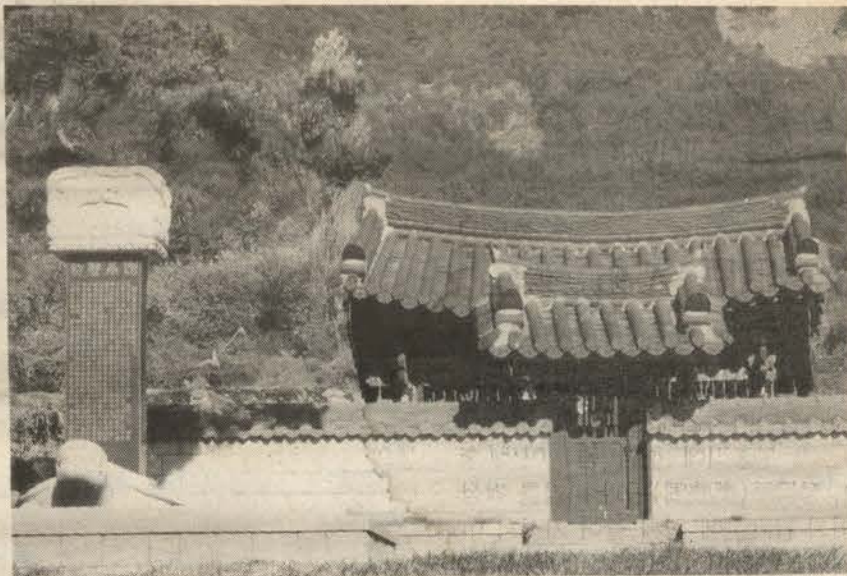
婦人 安東金氏는 父子 返葬後)에 7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을 따



誠久祠, 道山書院, 日新齋, 存養齋 全景

라 돌아 가니 조정에서는 諱 延壽장군에게는 贈 兵曹判書, 아들 諱岬에게는 贈 左承旨, 安東金氏에게는 淑夫人의 諡를 내리시니 忠臣, 孝子, 烈女로

推仰 받고 있다. 이곳 卞姓의 後孫들은 이 세 어른의 忠, 孝, 烈 삼강(三綱)의 정신(精神)을 이어 나가고 있다.



良村里에 위치한 三綱閭

■ 3·1獨立運動 指導者 한분인 卞相泰 輩出

八義士 한분으로 八義士墓域에 모시 다. 1905年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정명교(鄭明教), 황병기(黃炳基) 등과 의병운동(義兵運動)을 전개, 1910年 韓日合邦 후 최기택(崔基澤) 등 동지 6인과 함께 대봉회(大鵬會)를 조직,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15年 日本人이 韓國어린이에게 욕을 보인 사건이 발생하자 釜山노동자 200명을 인솔, 日人 가옥을 습격, 파괴했

(6면으로 계속)



◇삼일독립운동 순국8의사 묘역의 홍살문.

(5면에서 계속)

다. 1917년 대동청년당(大同靑年黨)에 加入, 위험부장(冒險部長)에 선출되고, 3.1 運動 때는 서울에서 참가한 후 경남지구 책임자로 진주(晉州), 함안(咸安), 창원(昌原)의 만세시위를 주동하고 피체, 2년간 복역했다. 1921년 의령(宜寧)에서 불심검문하는 순

사를 살해하고 일본천황 및 일본정부 고관을 암살하기 위해 도일하다가 피체, 다시 3년간 복역했다. 출옥 후 1944년 진주에서 구여정(具汝滄)등 11인의 동지와 고려구국동맹회(高麗救國同盟會)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良村里에 있는 八義士 묘지(墓地)에서 영민(永泯)하고 있다.

(편집실)

卞字의 字源解說

1. 卞字의 字源과 字意

(1) 卞字의 字源: (머리두...頭<머리두>와 同字 卞 (점철복, 子音 Pu3는 卞<Pien4의 부전음부(府轉音符)를 합한 회의형성자(會意形聲字).

(2) 字意: 점치는 (卞) 사람의 우두머리 (上)인 巫祝長 (卞) 이라는 데서, 사람의 姓. 특히 巫祝長을 겸한 帝王의 말 곧 法이며, 구복(龜卜)을 칠 때 부절가락의 뜨거운 火氣 에 구갑(龜甲)이 급작스럽게 갈라져 터지는 모양이 매우 조급하다는 뜻으로 씀.

성변 卞 姓氏: 卞隨(변수)...나라의 시조 탕왕(湯王)이 천하를 양여하려고 하자 그런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분개하여 주수(周水)에 몸을 던져 죽은 옛날의 고사(高士), 변화(卞和)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초(楚)나라 사람

이 산중에서 얻은 명옥(名玉)을 초왕에게 바쳤음. 화씨지벽(和氏之璧)을 전하여 보옥(寶玉)의 이름, 설번(薛卞)...옛날에 도검(刀劍)을 잘 감정한 설촉(薛燭)과 보옥을 발견한 卞和, 전하여 감상(感賞)하는 재주가 깊음을 이름.

법변 法制, 法則: 대변(大卞)...大法. 술순대변(率循大卞) <書經>.....大法에 좇음.

조급할변 성급함. 변급이호걸(卞急而好)

<左傳>.....성급하면서 깨끗한 것을 좋아함.

조변(躁卞)...조급(躁急).(文獻: 漢字字源辭典, 漢韓大字典)

1985년 11월 12日 (陰 10月 1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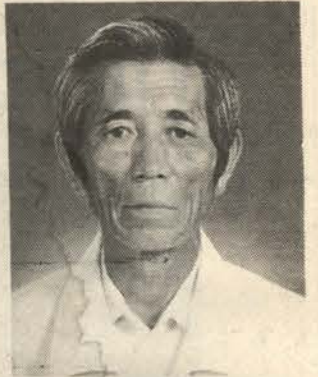
文烈公 29世 敬燮 謹編

卞姓小考中에서 轉載

浦項宗親會

顧問	변성복	054-221-6848
"	변병수	054-272-2992
"	변덕조	054-249-3917
會長	변재강	054-246-0742
副會長	변경도	054-275-5995
		011-521-0109
"	변창희	054-272-0472
總務	변명호	054-272-0525
副總務	변기준	054-221-1501
"	변정우	054-221-1704

草溪에서 雙冊으로



26世 卞鍾哲

草溪卞氏의 根源地는 원래 草溪였으나 왜군의 침입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유 미풍양속을 해칠우려가 있어 초계면 아막동에 주거하시다가 쌍책면 상포마을로 이거하신 선조님과 13世 通德郎公 諱 羽(우)의 玄孫이신 17世 虎榜官公 諱 抱의 史蹟을 소개하는 바이다.

雙冊面 上浦마을 入鄉祖의 史蹟

通德郎公의 諱는 우(우) 요, 字는 汝玉이며 號는 敬濟이고 官은 通德郎으로 中宗17年 壬午 1522年生이시다.

公은 始祖 文烈公의 12代孫이며 季派 仲始祖의 察訪公 諱 孝郎의 증손이시다.

우리 변성이 상포마을에 들어오기 전에는 昌原黃氏가 거주하였으나 폐망하여 이거하고 현세에 거주하는 姓氏中 제일 먼저 자리잡은 元祖이시다.

그 후 仁宗13世 通德郎公의 孫 15世 農窩公(농와공) 휘 汝元의 參朴俊凱(박준개)께서 처가의 도움으로 상포동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여 상초동에 거주하는 密陽朴氏의 派祖이며 配位 草溪卞氏 할머니의 묘소도 제공하였다.

그 후 玄風郭氏가 상포동에 정착된 것 역시 孝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19世 通政大夫 諱 德玄의 參 郭景大가 처가의 도움으로 거주하게 되어 현재 까지도 三姓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草溪卞氏 17世 通德郎公 諱 抱의 史蹟 공은 인조 계미 1643년생이시며 字는 君獻이고 號는 睡翁(수옹)이며 階(계)는 勳節校尉(려절교위) 正六品으로 관은 훈련관관을 역임하시고 숙종 병진 1676년 당33세에 虎榜官(현 考試官)을 역임하시다가 중년에 녹을 그만 두시고 고향에 돌아와 귀향시 한수를 편수하시고 선지(先志)를 받들어 후손의 도학(道學)을 위해 숙종 무오 1678년에 강학지소인 포상정 만오헌을 건립하시고 이듬해 춘 음미에 황강지에 평야지중 612번지에 일목 식수하여 강학은 물론 만인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수옹정이라 이름하고 호를 수옹이라 칭하셨다. 그리고 말년에 시우들과 경서로서 망우자오하셨다.

公의 歸鄉詩

和氣春台玉燭明
明時辭祿亦臣榮
歸來鄉落知何事
惟恐此身讀耕
有歸來賦上浦村
安身之地黃江邊
洗心之汀



풀이 화기찬 춘대에 옥축은 밝고, 신도 대를 같이 하여 녹을 두니 영화로다.

고향에 돌아와 무엇을 할고하니, 글 읽고 밭 갈자하니 이 몸이 두렵구나, 고향에 돌아 왔으니, 황강에 몸과 마음을 씻고 평안히 살지어다, 하셨습니다.

公은 항상 誠子(계자)를 배우지 못하여 모르는 것은 남에게 의뢰하지 말고 자신의 노력으로 進道之去하라 하셨습니다.

公은 杜門不出하고 학문탐구에 몰두하니 시암(是菴)李先生은 고상하다 하였고, 松堂 朴先生과 一齋 李先生은 早武晚學으로 학식이 탁월하시니 睡翁과 같은 사람이 몇사람이나 될까 하고 감복하였다는 사실이 향지와 東醫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함.

公께서 創業하신 유산 浦上亭 晚悟軒이 영구보전 되지 못하고 壬寅 1902년 520번지에 浦上亭을 중건하여 마을 三姓(삼성) 卞, 朴, 郭이 강학하였으며 초가로서 유지 관리하지 못하고 乙丑 1949년에 雲浦, 隱浦, 靑菴公 세분의 주선으로 浦上亭을 재건축하였으나 지대가 높고 교통상 내왕이 불편하여 乙丑 1985년에 洞 中央 392-2번지에 이거하여 小宗의 모든 종사와 춘추로 享祀를 봉행하며 제호정을 齋(재)로 개칭하여 浦上齋라 칭하고 있다.

(7면으로 계속)

문화의 달 10월에 생각한다

합천신문 편집위원

25世 변 용 규

며칠전 느닷없이 400년전 정유재란 때의 조선군 총본부를 생각하며 초계 산안을 차를 몰고 돌아보았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고 이땅에 강렬히 흐르던 초계인의 정신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옛날의 초계현은 임진·정유왜란을 겪으면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에 권을 도원수의 본진이 이곳에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으로 46일간 머물며 지친 심신을 재충전시켰던 유서깊은 곳이다.

필자는 수년전 김희동씨가 발간하던 합천월보에 합천인의 자존심이란 제목으로 투고한 적이 있다. 이때 주장한 것이 초계정신은 곧 합천 정신이요, 선비정신으로 그 뿌리가 유교에 있다고 했다. 이는 충효사상 즉 호국정신이니 가야산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이를 대변하고 삼가현에서 출발한 남명선생의 경의철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 대야문화제때 이름을 호국문화제로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었다.

10월10일인 엇그제는 제17회 대야문화제와 제10회 군민의날 행사가 비가 오는데도 진행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2회 문화제때 사무국장을 맡아 실무에 참여하였고 12회때 부위원장까지 지내다 후배들에게 넘겨준 처지에 추진위원 명단에서조차 이름이 빠져有口無言의 심정이다. 듣자니 제16회에 이어 제17회도 반쪽문화제를 했더니 통탄할 일이다.

합천군은 특별한 특산물도 없고 이름난 무형문화제도, 인간문화제도 없다. 이에 반해 경남에는 진주의 개천예술제, 밀양의 아랑문화제, 의령의 의병제, 영산의 3.1문화제등 4개의 특출한 문화제가 있다. 이들은 경남도의 지정문화제로서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갖고 해마다 빠짐없이 개최되어 그 규모와 전통을 더해가고 있다. 그렇다고 수백년 역사를 가진 문화제도 아니고 모두가 1950년대를 전후해서 시작한 것들이다.



우리 합천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과 정신마저 타군에 빼앗기고 있다. 고성, 통영의 오광대가 우리 것이었고 산청의 남명선생 추모제가 우리 것이었고 초계 합천삼가의 3.1운동이 영산을 능가했으며 합천군의 임란창의가 의령보다 대단하였는데도 왜 먼저 서둘러 정착시키지 못했을까? 생각할수록 못한 후손으로 가슴아프고 통탄할 일이다.

초창기 합천 문화제를 창출했던 옥산 김승일 선배님이 고인이 되신 지 수년, 초대군민상을 수여받았던 선배님의 공적비가 군민의 날인 10월10일 세워졌다. 마땅히 군민대상을 받았으니 군민의 이름으로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제막식이 있어야 했다. 왜 몇몇 추진위원들 만으로 세웠을까? 왜 군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창하게 군민운동장 앞에 우뚝세우지 못했을까? 왜 군민의 성금으로가 아닌 가족의 부담이었어야 했을까?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문화제전을 위해 몸비쳤던 김선배의 대접에 소홀함이 없었나 한번쯤 뒤돌아보고 생각해보자.

오늘의 합천은 김승일 선배와 같은 제2의 지도자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이제 진정으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지역갈등해소하고 고향타관 가리지말고 토박이, 선배, 후배 구분하지 말자. 종당에는 항열이요, 항당에는 연치이니 연장자는 형님이요 연하이면 아우이니 우리모두 이웃사촌 오손도손 정이 넘치는 합천을 만들어 보자.

하루빨리 훌륭한 지도자를 추대하여 합천문화제도 제자리 잡게 하고 빼앗긴 우리의 얼과 문화를 되찾아 새롭게 나아가자.

6代 國會議員卞鍾捧선생 별세



故 卞鍾捧선생

陝川女, 綜高設立, 國會外務分科委員長으로 活躍, 오사카領事 등 清廉한 公職生活, 遺志받들어 賻儀金 謝絶 1千餘名의 弔問客 哀悼속에 대양면 대목 先塋에 安葬

제6대 국회의원(합천, 산청)과 합천 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한 土谷 卞鍾捧 82歲 선생이 노환으로 서울에서 지난 2000년 6월 19일 오후 7시 10분 세상을 떠났다.

장례위원회(호상 변종철 전합천여고 교장)은 22일 오전 5시 강북 삼성병원 영안실에서 발인, 교통관계로 예정시간 보다 2시간 늦게 정오 12시에 합천 여중고 강당에서 영결식을 가졌다.

이날 영결식에는 합천여중고 학생들이 애도속에 강석정군수, 차관암전청장, 임재근 부군수, 윤한무군의장, 전재용교육장, 이명갑노인회장등 기관장과 심의조, 권재근, 오인교당국장등 정계인사, 권병석문화원장, 김연, 신성재 전문회원장, 이영기사학회장, 박환태, 정기철, 송상용사학자등 문화계 인사, 문자환 허성규, 공원석, 조문성, 정태화교장등 학계인사, 김병달PD, 변광수 PD, 조육만씨등 을유생, 변용규, 변종철씨등 초계변씨 종친등 관계 조문객 1천여명이 합천여중고 강당에 차려진 영결식장에 참석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변종봉선생은 1919년 1월 22일 대양면 대목리에서 변상규 오정순부모 사이에 태어나 1933년 합천공립보통

학교, 1938년 부산제2공립상업학교, 1941년 일본요구하마 전문학교 상업과를 졸업하였으며 1941년 조선식산은행 포항, 안동, 상주 및 본점 조사부 등에 근무했다. 1952년 외무부 파견 근무, 1953년 주일 대표부 오사카 총영사, 1956년 충주비료 공장장,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입후보(무소속 선거운동중 부인 하옥자여사 사별), 1964년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 외무분과위원장을 역임, 1966년 근화학원을 설립 초대 이사장, 1966년 제20차 UN 총회 한국대표, 1967년 제21차 UN총회 한국대표, 1977년 5월 12일 근화학원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생전에 태국 백상최고훈장, 말레이시아국 JMN수교훈장, 중화민국 대수경성훈장 등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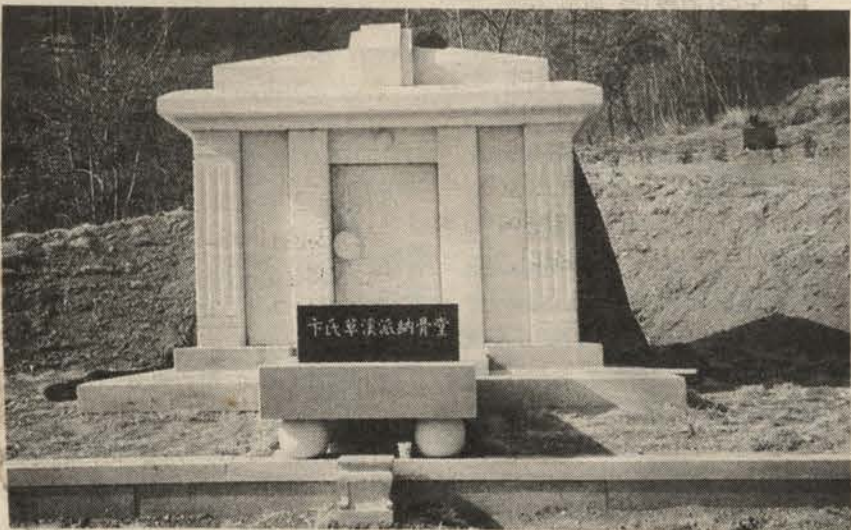
유족으로 부인 박점관 여사(1964년 재혼)와 장남 변을유 근화학원 이사장 가야대학교 초빙교수) 자부 김경애 동덕여대 교수(중앙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장), 차남 변성욱 (주)삼성이사 자부 김미숙 창덕여중 교사, 장녀 변계순 전합천여중 사무과장 사위 심채수 전합천여중 교장, 차녀 변정해 사위 박능출 전강남구세무서장 등이 있다. (편집실)

취 지 문

(남골당 건립)

옛날 草溪 고을의 중심지였던 이곳 단봉산자락 양지바른 곳에 자리한 선기등 유택지는 고려 문하시중 八溪君 휘 정실의 11세손 찰방공 휘 珪의 유택을 시작으로 累代를 통해 모셔오는데 12세손 통덕랑공 휘 세장과 13세 찰방공 휘 중안, 찰방공 휘 경완 그리고 14세손 조산대부 삼가 현감공 휘 희보 15세 훈원원 봉사공 휘 경남의 묘소는 옛부터 잘 보존되어 유표석하나 그외의 많은 조상들은 관리의 허술로 구분할 길 없어 평장으로 정치하고 재단으로 대체했으며 연고조차 찾을 수 없는 무덤은 정비하여 한곳에 위리안치하고, 훗날을 도모하여 문중 남골당을 정부지원 사업으로 설치하여 자손손 영원한 유택지로 삼았노라. 25세 화규와 용규 26세 종철이 중심이 되어 선영을 보살핌에 옛이름은 竹古派였으나 1998년 대종회 총회에서 草溪派로 개칭기로 결의하고 옛문헌의

고증으로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함은 만시지탄을 금치 못함이라 영남의 어느 문중보다 빛나는 충효의 가문이었다. 실록에 의하면 찰방공 휘 珪는 연산군에게 직소하는 용기를 보인 기록이 있고 휘 경완을 비롯해서 휘 희보 휘 경남 및 외손자였던 이일장은 임진왜란을 맞아 평천공 변 옥희 변덕홍 의병장과 함께 창의하셨고 관군에 편입되어 순직하신 선조가 있는가하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을 즈음하여 白衣從軍時 草溪에 유진할때 외갓댁으로서 많은 선조가 위문하고 위로했음이 난중일기에 소상히 기록되었으니 이 어찌 자랑스럽지 않으리, 후손된 자 마땅히 참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의 얼을 생각토록 함이요, 새로이 마련한 남골당에 안치됨은 조상과 함께 하는 영광됨이 있으리라, 자손대대 활용하고 보존케 함이니 열과 성을 다해 주기 바란다.



◇남골당: 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산 45번지

朝鮮 中葉 서울富者 譯官 卞承業의 行蹟

〈편집실〉

지난 7월 8일(土) 20:00 - 21:00 KBS 1 유인전의 歷史스페셜 푸로에서 톱스타로 등장한 우리 卞門의 선조이신 20世 卞承業의 행적을 선두로 조선중엽 역관의 역할과 영향력이 정치사회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사실로 생생하게 방영되었다.

여기에 譯官公 諱 承業은 지금으로부터 약350년전 서울 장안의 최고 부자로 살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와 돈을 꾸어달라는 許生이라는 선비에게 차용증서도 받지 않고, 돈 만양을 선뜻 내어준 인간미를 보였으니 그 장한

모습에 방중인이 모두 감탄하였다고 한다. 祖父이신 諱 繼永(18世)은 掌隸院 判決事로 계셨고, 백부이신 諱 應寬 19世 또한 掌隸院 判決事이시고 아버지 諱 應星(19世)은 賁憲大夫 增 判書인데 5兄弟 中 막내로 태어난 諱 承業(20世)의 만아들 諱 爾昌(21世) 만손자 諱 廷老(22世)까지 3代가 譯官의 집안이었다.

그 당시 中國語와 日本語를 배워 譯官이 된 분들은 통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外交와 貿易에 종사하는 역할을 하였으니 자연스럽게 부자집안이 되었다.

참고: 상기 프로를 다시보고 싶은 분은 인터넷으로 다음 기호를 눌러 볼 수 있습니다.
기호...www.KBS.CO.KR 역사스페셜 7월8일자 다시보기



(텔레비 출연)



회지부동산(대중회 이사)

전남 장흥읍 권산리 382-23

卞宗柱

사무실 (061)662-8687
자택 (061)863-15056
휴대폰 016-3300-8687



居昌宗親會

會長 卞亨植(一九世)

대구시 대명1동

전화번호 053)894-3005
팩스번호 053)894-3005

孝思想으로부터 出發한 祭祀

卞氏大宗會 副會長 25世 卞元圭

祭祀의 根本

조선조는 성리학에 의한 통치를 위하여 백성이 따를 수 있는 효(孝)라는 가부장적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생전, 사후의 부모에게 효도하게 함으로써 효의 원리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忠)을 실천하게 하였고 충은 결국 왕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인간본연의 바탕인 효(孝)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조의 제례의 목적은 효사상이었으며 이는 중국의 보본반시(報本反始), 추양계효(追養繼孝)이 사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제례의 효사상은 생전의 부모를 봉양(奉養)함이 미치지 못함을 뒤우치며 부모생전에 바쳐야 할 효를 사후까지 영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종상제사는 원시 영혼관에서 비롯되었으며 고대중국인들은 사후(死後)의 영혼은 잔생(殘生)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죽음을 통하여 육신은 소멸되나 영혼은 약120년 동안을 잔생한 후 소멸된다고 믿었고 잔생하고 있는 사후 영혼은 물질적 제향을 받지 못하면 굶주려 죽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물질적인 회생냄새와 술의 향기로 사후영혼이 잔생한다고 믿었던 중국에서는 6대 봉사를, 우리나라에서는 4대봉사를 하였다. 죽음을 통하여 혼기(魂氣)는 공중으로, 형백(形魄)은 지하로 흩어진 부모의혼백을 갱생(更生)시켜 제사음식을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사 때는 음양(陰陽)이론을 적용하여 청주(淸酒)를 땅에 쏟아 그 냄새를 지하로 보내 음에서 백을 부르고 희생제물을 죽여 불살라 그 기름 냄새를 공중에 올려 보내 양에서 혼을 불러 일시적으로나마 합혼백(合魂魄)을 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봉양방법은 잔생하고 있는 부모의 영혼에 효를 계속하고자 하는 추양계효(追養繼孝)였으며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보본반시(報本反始)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제(祭)는 肉, 수, 시의 의미를 포함한 상형문자로서 희생고기를 바친다는 뜻이었다.

祭禮節次와 解説

이러한 근본에서 시작된 유교식 제례절차는 조상신을 초대하여 모시고 음식을 대접한 후 모셔다 드린다는 가정하에 구성된 절차로서 근엄과 신비감을 고취하기 위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시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조선조 시제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참신례(參神禮)-강신례(降神禮)-진찬(進饌)-초헌(初獻; 축독(祝讀)

-아헌(亞獻)-종헌(終獻)-유식(侑食); 첨작례(添酌禮); 삽시정저(插匙正箸)-합문(闔門)-계문(啓闈); 하시저(下匙箸); 헌다(獻茶)-음복(飲福); 음복사식(飲福辭式)-사신(辭神)-분축(焚祝)-납주(納主)-철상(撤床)-준(餼)접대 등이다.

참신례는 제사행례를 하기 위하여 제주(祭主) 이하 모든 참제인(參祭人) 이신위에게 재배하는 예(禮)이며 강신례는 조상신을 내려모시는 예로서 술을 따라 모사(茅沙; 그릇에 모래를 담고 대풀을 묶어 꽂아 놓는 그릇)에 부어 신이땅(모사)에 내려왔음을 상징하였다(신주를 모신 제사에서는 참신을, 지방을 사용하는 제사에서는 강신을 첫순서로하였다). 진찬은 음식을 진설하는 예이고, 초헌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이며, 축독은 효손이 식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시라는 내용의 서식을 낭독하는 예이다.

아헌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로서 여자가 하였으나 중기이후에는 백부나 숙부 또는 장형제가 하였다. 종헌은 세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이며, 유식은 음식 드시기를 권하는 예로서 제주가 신위 앞에 꿇어 앉아 종헌잔을 채우는 첨작례를 하고 밥에 숟가락을 꼽고 젓가락을 나란히 놓는 삽시정저를 하는 것이다. 합문은 조상신이 음식을 드시는 동안 문밖으로 물어나 기다리는 예이고 계문은 조상신의 식사가 끝날 무렵 다시 정침이 있는 곳에 들어오는 예로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하시저와 국을 물리고 송농을 올리는 헌다를 하는 것이다. 음복은 축관이 음복사식을 읽음으로서 복을 내려주는 예이고 사신은 조상신에게 제사가 끝났다는 의미의 고별을 드리는 재배이며 분축은 축의 축문을 불에 태우는 예였으나 후에 축독 절차가 생략되고 부터는 종이신주(지방)를 불사르는 의식이 되었다. 납주는 뚜껑을 닫고 상자에 담아 사당으로 신주를 모셔가는 예이다. 철상은 진설했던 제수음식을 제기에서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아 제기를 비우며 제사상을 치우는 절차이고 준 접대는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절차였다. 기제의 절차는 시제와 유사하였으나 음복의 절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유교식 제례절차는 조상신을 모셔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다시 감실로 모신다는 철저한 각본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신주, 술,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다. 즉 제사에서 신주, 위패, 지방, 제수음식, 술 등이 생략되면 자연히 소멸될 행동순서들이었다. (9면으로 계속)

서울·京畿地域宗親會

새해인사



會長 卞大碩

서울 경기지역宗親 여러분!
 서울 경기지역宗親會長大碩이 이
 大宗報를 통하여 삼가 새해 인사를 올
 리게 되었습니다.
 제가會長을 맡아 3년이라는 卅月이
 흘렀습니다.
 그간 숙원사업이던 서울 경기지역
 宗親會員 명단을 작성하다보니 기왕이
 면 全國宗人名單을 만드는 것이 더 좋
 겠다는 理事會의 결의를 얻고 한편으
 로는 大宗會의 승인을 받아 全國을 순
 회방문하여 어렵게나마 年初에 完成하
 여 배포하고나니 미흡한 점이 한두가
 지가 아니었으나 그런대로 다행으로
 여겨져 발간 축하연도 갖어 보았습니
 다.
 이는 저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
 니고 고문 東錫氏와 총무 良洙氏 仁

川宗親會長 在運氏 감사 和辰氏 그리
 고 인사를 맡아주신 부회장 最洙氏의
 헌신적인 노력봉사와 全國地域宗親會
 長님들의 참여 협조정신의 소산물로
 이룩되었으니 너무도 벅찬 기쁨이요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3坪짜리라도 영구
 불천(永久不遷)의 연락사무실을 마련
 해서 상호연락이 된다면 종친회를 빙
 자한 사기성 강매행위에 의한 門中의
 피해도 보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
 다.

때는 지식정보화시대가 돼서 世界化
 되고 있는 오늘과 내일에 살아 남기
 위한 우리의 宗親會가 되어야 하겠기
 에 감히 호소합니다.

全國 各 地域宗親會가 나뉠대로 活
 性化되고 그 모임의 代表가 쉽게 한자
 리에 모여서 全國大宗會의 發展을 논
 의해 나아갈 때 우리 卞門의 앞날은
 탄탄大路가 되리라고 生覺됩니다.

바라올건대 우리 서울 경기지역 宗
 親會員 여러분이 다 함께 앞장서서
 結束을 다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새해인사를
 올렸습니다.

내내 가정의 幸福과 귀하의 건강을
 바랍니다.

① 서울·京畿宗親會의 宗歷

나 存在는 父母로부터 태어났으며
 부모와 함께 家庭을 이루고 가정이 社
 會와 國家를 이루어 우리라는 사이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번영(繁榮)과 平和를 추구(追求)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相互間 人權과 人格
 을 존중(尊重)하고 협조(協助) 돈목
 (敦睦)하며 國家와 社會 및 宗中과 家
 庭을 위해 盡力(盡力)한다. 이런 뜻에
 서 家庭의 延長인 宗親會의 歷史를 教
 訓으로 21世紀 時代에 부응(副應) 발
 전(發展)하기 위해 서울 경기종친회의
 宗歷(宗歷)을 정리(整理)하여 기록
 (記錄)한다.

● 1963년 5, 16 軍事革命 直後 가난
 했던 보리고개를 극복하고자 몸부림
 치고 있을 그무렵 우리 卞門의 시조
 문열공 휘 정실의 묘소는 봉분이 붕괴
 (崩頽)되어 기단석(基壇石)이 무너져
 주위에 흩어져 있었으며 묘비(墓碑)
 는 마을 앞 연못에 버려져 있는 상태
 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시조공(始祖
 公) 묘역(墓域) 봉축(封築)사업을 추
 진하기 위하여 萬永(만영), 哲(철),
 續根(속근), 廷圭(정규), 鍾九(종구),

哲圭(철규), 學洙(학수), 孝洙(효수),
 在榮(재영), 鍾和(종화), 篤永(준영),
 汶圭(문규), 大鉉(대현), 乙童(을동),
 熙燮(희섭)씨들이 중심이 되어 總
 973,000원을 모금하였으며, 總工事費
 150萬원중 65%를 부담하여 봉축(封
 築)을 하고 묘비(墓碑), 상석(床石),
 사자석(獅子石), 석등(石燈) 및 주위
 정비(周圍整備)를 完成하여 웅장(雄
 壯)한 모습을 오늘에 보게 된 것이다.
 이 모금활동을 하면서 在京花樹會의
 結成이 태동(胎動)되었다.

● 1967년 재경화수회(在京花樹會)로
 결성(結成)되어 初代會長에 廷圭氏가
 선출되어 운영돼 왔다.

● 1976년 서울에서 在甲(재갑), 鍾
 九(종구), 泰時(태시), 天洙(천수),
 相鉉(상현), 最洙(정수), 海仁(해인)
 씨들이會長 廷圭(정규)씨를 중심으
 로 卞氏花樹會 中央會를 새로 結成하
 여 全國에서 200餘명이 참석한 서울
 藥公會館에서 會議를 갖고會長에 廷
 圭(정규)씨, 副會長에 續根(속근)씨,
 萬永(만영)씨, 賢壽(현수)씨를 선임
 하였고 各道單位로 理事를 선임하여
 運營하였으며 지금의 大宗會로 발전하
 였다.

● 1980년 續根(속근)氏가 2代會長
 으로 選出돼 뒤를 이어 運營해 왔다.

● 1981년 5월 24일 어린이 大公園에
 서 總會를 열고 3代會長에 在甲(재
 갑)씨, 부회장에 鍾九(종구), 泰時(태
 시), 元圭(원규), 孝洙(효수), 孝根
 (효근), 泳澤(영택)氏들이 선출되었
 으며 相鉉(상현)씨가 總務, 最洙(정
 수)씨가 財務로 한 執行部가 構成되어
 宗勢擴張과 發展의 契機가 이루어졌다.

● 1983년 12월에 서울 西小門洞 소
 재 흥익갈비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4代會長에 汶圭(문규)씨가 선출되었
 다. 汶圭會長의 物心兩面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宗會가 날로 발전하였으며,
 한편 행정구역 변경으로 仁川이 直轄
 市로 승격되어 서울, 仁川, 京畿地區
 宗親會로 개칭되었다.

● 1983년 12월부터 1985년 봄까지
 永慕齋 建立事業 基金造成에 汶圭會長
 과 厚寬(후관)副會長의 노고가 지대
 하였으며, 그 당시 모금 전개상의 과
 정은 참으로 필설로 이루 헤아릴수 없
 는 일화가 많았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서울宗員들께서 열분이
 100만원씩 출연(出捐)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一族께서 노력하여 주
 신 덕분에 약1,900萬원의 성금이 조
 성되어 現 永慕齋 부지 매입과 신도비
 (神道碑) 건립을 서울宗會에서 부담
 하였다. 특히 기금 조성시 고령이 심
 에도 장년 못지 않게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志文族丈의 功勞를 밝혀 둔다.

● 1988년 4월 17일 卞氏 集成村을
 방문하는 행사를 하여, 京畿道 麗州
 (여주)를 방문하고, 1989년 4월 23
 日에는 淸州와 淸原을 방문하여 현조
 (賢祖)의 사당(祠堂)에 參拜하고, 集
 成村의 실정을 알게 되고 協助와 敦睦
 의 契機를 마련하였다.

● 1990년 5월 27일에 仁川宗親會가
 별도로 창립(創立)됨으로 인하여 서
 울, 京畿宗親會로 다시 改稱되었다.

● 1990년 6월 2일 선능에서 總會를
 開催하여會長에 汶圭氏를 만장일치
 로 再選出하였으며 宗會事業의 活
 性化를 위하여 基金을 造成키로 결
 의하고, 同年 10월부터 모금을 하여
 汶圭회장의 200만원을 비롯하여 哲圭
 (철규), 효수(孝洙), 무관(務寬), 태
 시(泰時), 정안(延安), 규칠(圭七),
 재기(在淇)氏 등이 각 100만원을 출
 연하여 주시고, 그 외 宗員들께서 協
 助하여 주심으로 17,005,050원의 基
 금이 造成되었다.

● 1993년 5월 22日 宣陵(선능)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여 5代會長에 瀟
 (준)氏를 만장 일치로 선출함으로 새
 會長團이 構成 되었으며 本會 活性化
 를 目標로 그 동안 宿願事業이었던 事
 務室을 開設하여 1993년 9월 11日 乙
 支路 4가 무광빌딩 7층에서 현판식
 (懸板式)을 가졌다.

● 1994년 3월 7日 理事會에서 二元
 化로 運營돼 오던 宗親會와 宗親親睦
 會를 任員親睦會로 改稱하여 一元化하
 였다.

● 1995년 퇴계로3가의 대립정에서
 定期總會를 열고 瀟(준)會長을 再選
 出하였다.

● 1996년 12월 21日 종친회사무실
 을을지로 4가 무광빌딩에서 수표동으
 로 이사하였다.

● 1997년 6월 6日 정계로 3가 센추
 럽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6代
 會長에 大碩氏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새로운 회장단이 개선되었다.

● 1997년 9月 理事會에서 本會 수표
 동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議決하여
 1997년 11月 4日에 閉鎖하고, 大碩會
 長의 비전호텔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
 다. 이로서 年間 賃貸料와 管理費등 5,
 040,000원이 절감 되었다. 또한 임원
 진을 젊은 층으로 개편하고 전임회장
 汶圭씨, 瀟씨를 비롯하여 鐸, 禎洙, 孝
 洙, 務寬, 在日, 東錫, 圭七씨들이 고
 문(顧問)으로 추대(推戴)되어 참여
 폭을 넓히고 기금조성, 全國宗人名簿
 발간 및 活性化를 기하고 발전의 토대
 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2개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계획된 업무시행
 추진을 제도화 하였다.

● 2000년 1月 현안이던 全國宗人名
 簿 발간을 위하여 大碩, 最洙, 良洙,
 和辰, 在運, 東錫氏들이 편집위원이
 되어 전국을 순회하여 자료를 수집하
 고 종인 협찬을 받아 1년6개월만에
 2000部를 발간하여 全國地域宗人에게
 배부하여 宗人間 地域間 소식 情報交
 流, 協助, 敦睦 및 發展의 기틀을 마련
 하였다.

● 2000년 1月 24日에는 종인 94명
 이 참석하여 소피텔 엠버스터 호텔에
 서 종친회 창립 이후 최초로 新年 交
 禮會 및 全國宗人名簿 발간 自祝宴을
 갖졌다.

● 2000년 6월 26日 소피텔 엠버스터
 호텔에서 143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에
 서 大碩회장을 연임 선출하였으며, 임
 원친목회를 해산하고, 대신 相助會 구
 성을 결의하였다. 그 동안 사업계획에
 의거 조성한 기금은 배가 되어 총 40,
 096,764원으로 증액 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 2000년 11월 14日 서울 비전호텔
 에서 22명이 모여 서울 宗親相助會를
 結成하였으며 相助會會長에 大碩 서
 울, 京畿宗親會會長, 副會長에 熙洙
 (희수) 監事에 志燮氏등을 선출하고
 顧問에 圭燮 大宗會長과 東錫氏를 推
 薦하여 會員間 相扶相助 및 敦睦과 宗
 親會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② 새千年을 向한 全國 宗人名簿 發刊하다.

知識情報化時代를 살아갈 21世紀에
 일족간과 지역종친회간의 연락과 교
 류, 소식 및 정보전파, 상호협조 그리
 고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선조의 위
 업을 알려 명문자손으로서 자긍심을
 (10면으로 계속)

(9면에서 계속)

일깨우며 나아가 대종회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종인명부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많은 자금의 소요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러 하나의 숙원사업이 되어 왔든 것이다.

이제 새천년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더 이상 담보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대종회는 전국종인명부를 발간기로 결정하고 서울종친회에 그 발간을 위임하였다.

서울종친회에서는 명부발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을 세우고 자료수집 편집 작업에 착수하였다. 전국각지에 살고 있는 일족들의 명단과 주소 확인, 사진자료 수집, 광고 협찬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종사와 후세들을 위하여 백의종군의 정신을 갖고 전국각지역을 몇차례 순회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선조의 유업을 사진으로 담고 협조를 받아 1년 6개월만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해가족생활로 선조의 유업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세대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고 명문가의 자긍심을 심어줄수 있도록 선조유업을 약술하고 서원(書院), 사당(祠堂), 정여(旌閭), 행의기록(行義記錄)을 실었다.

명단은 지역적 어려움으로 일부가 누락 되었지만은 총 12,000여 가구를 수록하여 우선 활용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대종회가 발전할수 있는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 종인명부의 편람을 통해 卞씨는 돈목(敦睦)을 기하고 21세기를 향하여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종인명부는 종인들의 협찬금으로 완성되었으며 협찬하여 주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금협찬하신분

◆ 1963年 始祖公墓域 封築 및 擴張 整備事業 協贊하신 분

◎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 드립니다.

- 卞廷圭 75,000원
- 卞鍾九 300,000원
- 卞哲奎 100,000원
- 卞學洙 100,000원
- 卞篤永 50,000원
- 卞孝洙 50,000원
- 卞在榮 50,000원
- 卞鍾和 50,000원
- 卞大鉉 30,000원
- 卞汶圭 30,000원
- 卞乙童 30,000원
- 卞熙燮 20,000원
- 卞志文 10,000원
- 卞延安 10,000원
- 卞善溶 10,000원
- 卞興烈 10,000원
- 卞相璋 5,000원
- 卞重植 5,000원
- 卞甲俊 5,000원
- 卞冕燮 3,000원
- 卞喆奎 3,000원
- 卞玉燮 3,000원

- 卞晚壽 2,000원
- 卞志浩 2,000원
- 抱川郡宗親 20,000원
- 總計 973,000원
- ※卞寬植 東洋書 3點 변수홍氏가 保管함.

◆ 1998年 서울종친회에 기금 협찬하신 분

- 卞大碩 10,000,000원
- 卞志文 600,000원
- 卞煥喆 500,000원
- 卞鐸 2,000,000원
- 卞圭七 500,000원
- 卞相鳳 500,000원
- 卞務寬 2,000,000원
- 卞在日 1,000,000원
- 卞禎洙 500,000원
- 卞哲均 500,000원
- 卞泰源 500,000원
- 卞相仁 500,000원
- 卞孝洙 2,000,000원
- 卞鍾瑞 500,000원
- 卞鎬平 1,000,000원
- 卞延安 500,000원

總計 : 23,100,000원

◆ 1999年 全國 宗人名簿 發刊에 협찬하신 분

- 서울...卞正燮 200,000원
- 卞相贊 200,000원
- 卞鍾國 100,000원
- 卞慶浩 300,000원
- 卞榮燮 200,000원
- 卞快洙 300,000원
- 卞相權 300,000원
- 卞相允 300,000원
- 卞喜燮 200,000원
- 卞駿燮 300,000원
- 卞汶圭 200,000원
- 卞鍾善 200,000원
- 卞熙洙 300,000원
- 卞煜 300,000원
- 卞容旭 200,000원
- 卞在淇 290,000원
- 卞光植 200,000원
- 卞宗昊 300,000원
- 卞東錫 200,000원
- 卞진석 200,000원
- 卞圭燮 100,000원
- 卞相鉉 100,000원
- 卞東吉 200,000원
- 卞殿洙 300,000원
- 卞正佑 300,000원
- 卞四鳳 100,000원
- 釜山...卞鍾福 300,000원
- 卞泰和 200,000원
- 卞奎鶴 1,000,000원
- 卞俊哲 2,000,000원
- 卞在郁 300,000원
- 卞源一 200,000원
- 卞鍾潤 500,000원
- 卞대훈 500,000원
- 卞洪釘 300,000원
- 卞東錫 500,000원
- 卞운조 300,000원
- 仁川...卞基洙 1,000,000원
- 卞煥善 1,000,000원
- 卞榮文 500,000원
- 卞石圭 500,000원
- 卞昌甲 300,000원

- 京畿...卞炳善 500,000원
- 忠南北...卞鍾爽 500,000원
- 卞永洙 1,000,000원
- 卞鍾明 300,000원
- 卞상태 200,000원
- 馬山·昌原
- 卞在貞 1,000,000원
- 卞鍾模 200,000원
- 卞在圭 200,000원
- 卞敏旭 200,000원
- 卞斗錫 200,000원
- 卞以植 300,000원
- 卞鍾秀 100,000원
- 卞秀甲 100,000원
- 卞在範 100,000원
- 卞榮 100,000원
- 卞辛圭 200,000원
- 卞在雄 200,000원
- 卞富源 200,000원

- 卞在永 200,000원
- 浦項...卞敬道 300,000원
- 卞在綱 300,000원
- 京畿...卞洋一 200,000원
- 京畿 抱川...卞진수 200,000원
- 京畿 平澤...卞열규 300,000원
- 京畿 富川...卞종욱 200,000원
- 京畿 義旺...卞東明 300,000원
- 全南 長興...卞宗柱 200,000원
- 慶北 비안...卞在鶴 100,000원
- 忠南 牙山...卞유석 1,000,000원
- 大邱宗親會 700,000원
- 大邱...卞길태 100,000원
- 卞明煥 100,000원
- 卞鍾和 100,000원
- 蔚山宗親會 300,000원
- 蔚山현림公派 500,000원

總計 : 25,990,000원

③ 서울, 京畿宗親會 行事

● 신년교례회 (新年交禮會)

2000년 1월 24일 서울 경기종친회는 서울 소피텔 엠버서더호텔에서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천년을 맞아 신

년교례회 및 전국종인명부 발간 자축연을 성대하게 갖어 일족의 친목과 새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 정기총회 (定期總會)

2000년 6월 26일 서울, 경기종친회는 호텔 소피텔 엠버서더 대연회장서 143명이 참석하여 2000년도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2000년도 시조공 시향 참여자 직지사에서 기념 촬영

● 시조향사(始祖享祀)에 參拜

2000년 음력 10월 1일 서울, 경기종친회는 년례 행사로 43명이 대형 버스로 합천군 울곡면 갑산리의 시조공향사에 참배하였다.

● 선조 유적지 순례 및 지역종친회 방문

서울, 경기종친회 회장 大碩, 고문 東錫, 감사 和辰, 총무 良洙는 1998년 5월 12일부터 10餘일간에 걸쳐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일암리에 소재하고 있는 성구사(誠久祀), 삼강여(三綱閭),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에 소재한 봉양서원(鳳陽書院), 충북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에 소재한 충경사(忠

敬祀), 강서동(내곡동)에 소재한 송계서원(松溪書院), 청원군 북일면 비중리에 소재한 국계서원(菊溪書院)을 비롯하여 경북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이현재(梨峴齋), 경남 밀양시 초동면 신희리 삼현유허비각(三賢遺墟碑閣), 경북 문경시 산양면 반암리 지락헌(至樂軒) 및 사효재(思孝齋),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공장공(恭莊公) 신도비각(神道碑閣), 경남 합천군 청덕면 양진리 일충오효각(一忠五孝閣) 및 수강재(樹岡齋), 포상재(浦上齋), 경남 울산시의 성모재(誠慕齋)를 순회 참배하여 훌륭한 선조님을 추모하였으며 地域 宗親會와 集姓村을 訪問하였다.



서울·京畿宗親會 2000년 1월 24일 新年交禮記念



新年交禮會의 大碩會長人事
2000. 1. 24



新年交禮會 祝賀케이크 커팅
左로부터 東錫, 鍾瑞, 務寬, 圭燮, 汶圭, 奎秀, 大碩



定期總會의 國民儀禮
2000. 6. 26



定期總會 祝賀케이크 커팅
左로부터 東錫, 奎秀, 汶圭, 圭燮, 大碩, 元圭, 和辰, 光洙

先祖 遺蹟地 巡禮

및

地域宗親會訪問畫報

※ 卞氏 서울·경기宗親會에서 宗員名單資料수집차.



忠北 清原郡 加德面 柿洞里所在의 忠敬祠



慶南 馬山市 合浦區 鎮田面 日岩所在의 誠久祠



忠北 清原郡 北一面 內谷洞所在의 松溪書院



慶北 清道郡 豐角面 봉기리所在의 鳳陽書院 崇賢祠



釜山 旭成化學(주)(卞俊哲)訪問 '98. 6



慶北 聞慶市 山陽面 盤岩里所在의 至樂軒



京南 密陽市 초동면 신호리所在의 三賢遺墟碑閣

記者가 뽑은 議政스타

서울九老區議會 議員 卞漢洙議員



변한수(27世)씨는 연안공과 부회장이 으로서 종사에도 남달리 애써오고 있지만 보다 더 사회와 국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2대의 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하여 기자가 뽑은 의정스타로 추대되었으니 본인의 영광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변문을 빛낸 종인이기에 의정활동에 있어 주요 행적을 소개하는 바이다.

◆ 주요활동

- 본 의원은 구로구 2대 의원으로 '95년 7월부터 의원직을 수임한 이래 지금까지 2대에 걸쳐 구로구 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장직을 맡아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 특히 '62년 - '71년 10년간 진천군청 공무원 시절 때 경험을 쌓은 예산, 결산분야의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2대에 걸쳐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현직의 후배 공무원들에게 예산, 결산의 달인, 빈틈 없는 예산통이란 별칭을 받으며 존경과 부러움, 두려움의 존재로 구청의 감시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자치구 의원의 범위를 넘어 국회의원의 역할인 '도시계획

법 시행령 개정안', '감사원 심사결정에 대한 직권재심의 요청건의안, 미귀속재산 환수에 대한 진상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 등을 건의하는 등 큰 의정활동을 펼쳤다.

- 또한 자신의 집 마당에 양질의 수택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비를 들여 수십메타의 지하수 관정을 박아 24시간 대문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약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일을 '89년부터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 본의원은 이 일을 해오면서 전기료, 모다 수리비, 수질검사비 등 매년 100여만원의 사비를 투입하고 있다

- 그리고 99년에는 자신의 지역구(수궁동)에 소재하고 있는 온수초등학교에 40여명의 결식아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금운동을 펼쳐 1,200만원 상당을 모금하여 학교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 지역구 수궁동은 구청과 가장 멀리 있는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려면 왕복 1시간은 소요되어야 한다는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본의원은 온수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줄 것을 구청장에게 건의했다.

본의원의 건의에 따라 정보방, 대화방, 도서방 및 구청, 동사무소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일명 21세기 현장민원실이라고 불리는, '구로구청 현장민원실'을 지난 8월에 온수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학교부지로 용도 지정이 되어 있는 사유지를 문교부와 서울시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건의했다. 본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 복지관은 이 달에 착공하여 내년 중에 완공될 예정이다.

- " 홍정 (洪釘) 31세
- 監事 광섭 (光燮) 27세
- 總務 석규 (碩圭) 25세
- 財務 상명 (相明) 28세
- 理事 현규 (鉉圭) 25세
- " 태화 (泰和) 26세
- " 종복 (鍾福) 26세
- " 종병 (鍾秉) 26세
- " 국현 (國鉉) 26세
- " 대훈 (大勳) 26세
- " 종권 (鍾權) 26세
- " 종대 (鍾大) 26세
- " 흥수 (興洙) 27세

- " 영수 (永壽) 28세
- " 준석 (俊哲) 29세
- " 희식 (喜植) 29세
- " 귀섭 (貴燮) 29세
- " 정섭 (正燮) 29세
- " 재관 (在寬) 30세
- " 성용 (性用) 30세
- " 재선 (在善) 30세
- " 찬수 (贊守) 30세
- " 기석 (琪錫) 31세
- " 해근 (海根) 31세
- " 동석 (東錫) 31세

大邱宗親會 定期總會

總務 卞相德

대구종친회는 지난 6월18일 정오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신불부고을 2층 연회실에서 200여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제1부에서는 삼용 전회장의 인사에 이어 내빈소개와 포상이 있었는데 삼용회장에게 이사10년 총무6년 회장 4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하여 대구종친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여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종친회 회원을 대표하여 영수 고문의 공로패 포상이 있었다.

이어 부회장 태용, 총무 천근, 재무 상덕에게도 삼용회장의 공로포상과 임

원개선이 있었다.

16대 회장에 인섭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새 임원진이 앞으로 2년간 수고를 하게 되었다.

이 뜻깊은 자리에 변규섭씨 대종회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바쁜 공무원계로 참석치 못하고 대종회 이사인 원규씨가 참석하여 변씨가 대구에 입향하게된 유래를 말씀하고 축하하여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2부에서는 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인이 즐겁게 오찬과 함께 노래자랑을 하면서 시종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축의를 돈독히 하고 화목단결을 재 확인한 자리였다.



釜山宗親會

부산종친회는 새천년을 맞아 익수씨를 회장으로 재선출하고 동만씨를 수석부회장, 석규씨를 총무로 하는 새 보좌진을 구성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 顧問 선규 (宣圭) 25세
- " 후관 (厚寬) 30세
- 元老 종길 (鍾吉) 26세
- " 응덕 (應德) 27세
- " 의삼 (義三) 28세
- " 영술 (榮述) 29세
- " 인섭 (仁燮) 29세

- " 낙문 (洛文) 30세
- 會長 익규 (益圭) 25세
- 首席副 동만 (東萬) 28세
- 副會長 석규 (碩圭) 25세
- " 윤조 (允祚) 25세
- " 종길 (鍾吉) 26세
- " 종윤 (鍾潤) 26세
- " 원수 (元秀) 26세
- " 리윤 (利潤) 27세
- " 규학 (奎鶴) 27세
- " 하섭 (夏燮) 29세
- " 원일 (源一) 29세
- " 재욱 (在郁) 30세

〈大邱宗親會 任員〉

- 顧問 泰寬 (태관)
- 瑩守 (영수)
- 三龍 (삼용)

- 會長 廣錄 (광록)
- 副會長 台龍 (태용)

- 鍾三 (종삼)
- 川根 (천근)
- 監事 鍾喆 (종철)
- 相喆 (상철)

總務 相德 (상덕)

理事 正壽 (정수)

- (무순) 永度 (영도)
- 楹燮 (영섭)
- 在玉 (재옥)
- 원수 (원수)
- 成鍾 (성중)
- 明煥 (명환)
- 判守 (판수)
- 光燮 (광섭)
- 명수 (명수)
- 성수 (성수)
- 상수 (상수)
- 진갑 (진갑)
- 종화 (종화)
- 종근 (종근)



울산 성모재



울산 성모재 낙성식 광경

아아 공께서 낙향하신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임진왜란으로 世傳文籍과 遺文行錄이 병마로 燒盡되고 말았으니 家乘이 있기는 하지만 미세한 것이 많으니 참으로 한스러운 일이다.

公은 宣祖 甲午 十月 五日에 卒하셨고 配는 己酉生으로서 婦德을 갖추었고 丙申 三月 十五日에 卒하셨다.

子 玄東은 軍功으로 嘉善大夫 兵曹

參議에 除授되었고 孫은 琦福 琦男 琦成이요 曾孫은 三英 三益 三晉 三慶 三信 三建 三遇 三容 三油 三達 三遐 三生 三觀 三敏 三逸이시다.

誠慕齋는 蔚山廣域市 中區 聖安洞 865-6번지 垆地 378坪에 誠慕齋 28坪 善堂 23坪 기타 5坪 건물 등이다.

清原地域

① 草溪君 諱 僞 忠敬公의 祭祀奉行 不祧廟 忠敬祠에서

草溪君 15代孫 卞相鉉

지금으로부터 494년 전인 1506년 연산군을 폐하고 中宗을 추재하는 정국정란에 공을 세운 草溪君(초계변씨 13세) 諱 僞 忠敬公의 忌日인 지난 5월14일(음4월11일)에 충북청원군 가덕면 시동리 소재 부조묘, 忠敬祠에서 연안공파 자손 다수인이 참석하여 금년도 제사를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초계군은 연산군을 폐하고 靖國政亂에 큰 공을 세우시어 靖國功臣 四等의

首席功臣으로 中宗大王으로 부터 勳을 받으시고 초계군의 封號와 충경의 鎭號를 받으시었다.

부조묘는 당초에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에 창건되었으나 한때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에 이안하였다가 1976년 지금의 가덕면으로 이안하여 증개축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 영정을 봉안하여 위패와 함께 모셔오고 있다.



草溪君 祭祀를 의시고



草溪君 諱僞影禎



草溪君 神道碑

侍墓 3年の 孝行

11世 兵使公 諱 袍의 行蹟



延安公派 會長 卞相鉉

卞袍는 乙亥(1419年)에 아버지 延安公 諱 袍와 어머니 蔚山李氏 사이에 태어난 無女獨男으로 태어나시고 公의 나이 11歲에 아버지를 여의시니 어린 나이에 도 侍墓 3年을 하시었다.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버선을 신지 않으시고 墓幕에서 3年 겨울을 나시는 孝行이 世宗大王에게 알려져 王으로부터 孝子賞을 받으신 사실이 世宗實錄에 기록되어 있다.

할아버지인 判尹公 諱 南龍은 世宗大王의 아버지 太宗 李芳遠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1401年)후 27세(丁卯 1447年)에 訓練參軍에 올으시고 44歲(甲寅 1464年)에 慶尙道 兵馬節制使를 거쳐 戊子 1468年 上護軍으로계실 때 明나라 자혜皇后의 弔問

使節로 被命받아 1469年에 明나라를 다녀 오셨다. 예종 元年에 慶尙道 盜賊討伐 副將으로 出征하여 큰 功을 세웠고, 그 후 金海와 長興府使를 거쳐 定州牧使와 清州牧使를 지내셨다.

1482年에 果川의 盜賊討伐에 先鋒將으로 큰 功을 세우시니 當代의 名將으로 높이 推仰을 받으시었다.

1488年 2月 29日 卒하시니 享年 70歲로 一生을 마치신 顯祖이시다.

公은 3子1女를 두셨는데 郡守公 諱 玉崑과 中直大夫 諱 散全과 諱 敬全이시고 孫子는 草溪君 諱 僞과 諱 集이시다.

公의 墓는 清原郡 加德面 柿洞에 있다.

卞氏大宗會任員名簿

직책	성명	세수	계파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교문	卞 廷 煥	29	仲	경북 경산시 점촌동 산75	053-423-2233	712-715
"	卞 鍾 爽	26	長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 72	043-214-0042	636-930
"	卞 鍾 喆	26	季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동 830-3	051-802-4423	614-762
"	卞 宣 圭	25	"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105-3 선경A 5동 502	051-802-4423	614-762
"	卞 汶 圭	25	長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102-22	02-591-0514	156-080
"	卞 萬 燮	29	"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352-3	055-271-5358	631-832
"	卞 務 寬	30	仲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09-16	02-793-3003	140-817
"	卞 昌 熙	30	"	경남 진주시 상봉동 743-1 화진A 201	055-745-2075	660-050
회장	卞 圭 燮	31	仲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9 시그마타워A 1803호	02-413-8524	138-734
부회장	卞 大 碩	27	長	서울시 송파구 잠실7동 아세아선수촌A 6동 602	02-412-4548 011-739-4548	138-227
"	卞 元 圭	25	季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삼곡본동 562-186 신동아빌라 나동 202	02-645-4677	422-240
감사	卞 良 洙	27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11-312	031-443-1067 018-353-1067	430-014
"	卞 秉 永	27	仲	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383-5	053-765-5950	706-834
"	卞 鍾 昊	26	季	경남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306	055-932-1327	678-822
총무	卞 仁 燮	29	"	대구시 달서구 송현2동 월성A 9-410 (경남 합천군 청덕면 양진리 350-4)	053-621-2073 011-430-2073	704-764
당연직서술이사	卞 正 佑	30	長	서울 광진구 자양1동 220-36 동부A 302호	02-456-5060	133-191
" 부산 "	卞 益 圭	25	季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2가 138번지 삼익빌라 501	051-246-6188	602-750
" 대구 "	卞 廣 錄	25	"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1-11	053-762-8495	706-0820
" 인천 "	卞 在 運	30	長	인천시 남구 용현2동 446-14 4/7	032-883-4479 02-677-9359	402-022
" 마창 "	卞 富 源	29	"	경남 창원시 북면 신촌리 428-5	055-299-400	614-873
이사	卞 南 洙	27	長	경북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509	054-451-8203	730-815
"	卞 相 龍	28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36-17	043-214-0147	363-932
"	卞 鍾 樂	26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비중리 75	043-213-0753	363-935
"	卞 鍾 燮	29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41-1	061-863-5056	529-804
"	卞 在 熙	30	"	경남 진주시 평거동 301-1 한보 하이타운 402	055-746-8339	660-991
"	卞 文 洙	27	"	인천시 남구 주안5동 동인A B동 402	032-873-8026	402-205
"	卞 東 萬	28	"	부산시 북구 만덕1동 830-1 7/4	051-333-6070	616-828
"	卞 福 九	25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67	02-614-0822	423-010
"	卞 澈 宗	28	"	경남 양산시 신기동 511-3 신기한마을A 104-1402	055-387-9836	626-130
"	卞 健 植	29	仲	경남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170-1	055-942-0772	670-913
"	卞 在 圭	31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55-150	055-943-5868	670-807
"	卞 在 鶴	30	"	경북 의성군 구천면 모흥리 71	054-861-2101 011-545-9287	769-940
"	卞 泳 一	32	"	경북 의성군 구천면 내산리 303	054-861-2055	769-941
"	卞 三 龍	29	"	대구시 서구 평리동 청구타운 103-909	053-564-4568 011-9577-4049	703-014
"	卞 致 煥	29	"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054-372-2339	714-833
"	卞 鍾 泰	30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46-2 고강A 2동 107호	032-671-5829	421-190
"	卞 容 圭	25	季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09-2	055-931-2109 011-796-2109	678-800
"	卞 碩 圭	25	"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1동 201-43 5/2	051-893-0872	614-111
"	卞 乙 圃	27	"	경남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524	055-931-0024	678-941
"	卞 逸 根	28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양진리 397	055-933-8676	678-852
"	卞 潤 洙	27	"	경남 의령군 낙서면 정곡리 1039	055-572-7068	636-972
"	卞 鍾 權	26	"	부산시 남구 대명1동 1730-15 8/1	051-628-0014	608-021
"	卞 相 明	28	"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2가 313 삼익A 5-408	051-242-5160	602-750

♣ 알 림 ♣

속지마세요

근간 전국 각지에 종친회를 빙자하여 책자를 우편으로 강매하고 있습니다.
당 종친회에서는 우편으로 책자나 물건을 판

매하는 일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받고 책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상인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를 올립니다.
예를 들면 전화로 종친회를 빙자하여 주소를 확인한 후 책을 우송하고 책 대금을 입금시키도록 독촉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례를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명: 선현의 발자취(초계, 밀양변씨)

보급처: 서울 송파구 삼전동 101-10 삼전빌딩 3층
편저: 한국성씨사료연구원
예금주: 변 경 진
책대금: 120,000원
문의전화(책자발행처 02-420-2675)
◆테이프: KBS 영상사업단과 종친회를 빙자하여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는 사례 재 환
◆책자: 종친회를 빙자하여 만성보를 강매하는 변 병 수 등이 있습니다.
(편 집 실)

清道宗親會

청도 봉양서원 文肅公派 宗親會에서 는 송조사상을 함양하고 宗門의 화합, 단결과 더욱 발전된 求心地로 가꾸기 위하여 1998년(戊寅) 4월(음 3월14 일)에 서원 경내 西齋(釜鳳齋)를 중 후하게 증건하는 한편 아울러 거창 春堂公派 宗親會와 협의하여 崇賢祠堂내 春堂, 春亭 兩公位의 位牌 후면에 후 손들의 숙원이던 影幀을 奉安하였으며

그 과정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影 像圖出에 참고가 된 兩公位의 文獻에 의한 사적들을 담은 "影幀實記"의 책 자를 발간하였다. (사진 및 고유문 참조) 그리고 2000년(庚辰) 4월 18일 (음3월14일)에 봉양서원 춘향제에 앞 서 문숙공 춘정선생 송모비를 송현사 사당 앞에 건립하고 고유제를 엄숙히 거행하였다.



◇鳳陽書院 全景

崇慕碑 告由文

570년이 흐르는 지금 나라에 거룩 한 업적을 이 땅에 남기시고 1430년 세종12, 庚戌年 4월 23일에 우리 후 손들을 오늘에 남기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조정의 사대부 장례절차에 따라 그해 6월장례에는 세종대왕과 왕세자 가 祭文과 부의관, 그리고 贈儀 미두 30石을 내리시고 임강현 구화리 선영 측 양좌지원에 고히 잠드셨으나, 오늘 날 우리 후손들은 영면처에 배형을 못 하고 확인 할 수 없어 죄송한 마음 금 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1935년 올해에 문숙공 춘정 선생 제단을 이곳 부곡등에 모시었고

그 이전 1768년 영조44, 戊子年에 거 창 屏岩書院에 春堂, 春亭, 龜山, 三公 位가 배향되어 왔으나 아깝게도 1871 년 고종8, 신미년에 서원 철폐령에 의 해 훼손된후 공허 하든차에 1938년 戊寅에 봉양서원을 증건하면서 춘당, 춘정, 兩公位를 배향 하였고, 1998년 戊寅에 송현사의 위패 배후에 그림던 양공위의 影幀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업적을 담은 儀物의 石碑 를 아쉬워 하든중 오늘 이제 후손들의 정성을 한데모아 우리나라 최초가 되 신 20여년의 文衡의 업적에서 만 백성 이 추앙하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文肅公 春亭先生 崇慕碑

터전을 이룩한 집현전을 1420년 세종 2, 경자년에 왕에 건의하여 할아버지 계서 열으시고 인재양성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교사령은 물론 성리 학의 기초위에 나라의 의례제정과 고 려사 修撰 및 역대 왕조실록의 編纂에 참여하시고 성균관 및 지방 향교의 확 충으로 관학 學脈의 거봉을 이루시고 예조판서, 세자이사, 도총제부사를 더 하여 많은 공훈을 쌓으 셧습니다.

그리하여 1442년 세종24, 壬戌년에 왕명으로 문집이 초간되었고, 그후 1824년 순조24, 갑신년에 밀양변씨 거창 병암서원에서 540여수의 시문 악장이 포함된 원집 12권이 중간되었

고, 그후 1937년 정축년 대구에서 후 손 斗室등이 문집에서 빠진 작품을 왕 조실록과 기타 문헌에서 자료를 뽑아 년보등 속집 4권이 간행되어 오늘날 寶典으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화 창유에도 기리 그 높은 학문을 받들어 있으니 차마 가려 분간하기 어 려움 크나 큰 업적들이 千秋에 빛이되 어 이곳 봉양에 머무시고 우리 후손들 의 오랜 한을 구화리의 신도의 銘은 아닐지라도 좌정하신 崇賢祠의 神域의 길목에 공덕의 龜鑑을 정성껏 빛들에 새겨 송모의 銘으로 겹쳐히 봉정하오 니 길이 후손들을 돌봐주시고 음향 하 읍소서

影幀奉安 告由文

밀양의 큰 고을 서쪽 삼십리 龜齡里 (구령리, 현 성만리)에 密陽卞氏 형제 의 두 학자분이 우뚝하였으니 일컬어 춘당공(春堂公) 춘정공(春亭公)의 두 현조(顯祖)이시다.

춘당공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문하에서 수학하시고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 양촌(良村) 권근(權近)과 강논(講論)하시니 고매한 학문 의 연원(淵源)이 명확하고 의리가 뚜 렷하여 사직(社稷) 수호의 목숨건 누 예(漏曳)로서 그 높은 충절이 당세 (當歲)함께 빛나시다.

춘정공은 여말(麗末)의 문장(문장)

이요, 국초(國初)의 문형(文衡)이니 성덕(盛德)을 보필하고 교화(教化)를 선양하여 무릇 관학(官學) 학맥(學脈)의 거봉(巨峰)을 이루시고 문물 (文物)이 찬란하니 후세의 학자에게 유택(遺澤)이 전해졌고 조선왕조 민 족사에 기리 빛이 되셨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그림던 영상(影 像)을 모시옵고 크나 큰 음덕(蔭德) 을 쌓고져 이에 향사(享祀)를 올려 정 성(精誠)을 드리오니 사당(祠堂)안에 임의 영정(影幀) 좌정(坐定)하시와 기리 기리 후손들을 어루만져 주옵소 서

聞慶宗親會

定期總會 開催

문경종친회 부회장 27世 卞良洙

2000年 4月 23日 문경종친회에서 는 慶北(경북) 聞慶市(문경시) 山陽 面산양면 盤岩里(반암리) 소재 至樂 軒(지락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 다.

이날 후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본회의를 개최 선언하여, 大碩(대석)회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약3년간의 임기 동안 추진 해온 위선 사업을 대과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18면으로 계속)



◇2000년도 문경종회 총회겸 회수회 기념

(17면에서 계속)

하게 된 것은 여러 종원들께서 1억6천만원의 헌성금이 모금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종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聞慶入鄉祖(문경입향조)이신 11世 諱 李欽(이흠) 鎭岑縣監公(진잠현감공)의 유적지인 思孝齋(사효재)와 至樂軒(지락현)을 중수하고 유허비(遺墟碑)도 수비(豎碑)케 되었으며, 경내외에 조경도 하였고 또한 30평의 관리동도 신축하게 되었다. 특히 지붕 개량을 한 至樂軒은 동기와로 하여 일반기와 수명과는 달리 약이삼백년의 반영구적인 것이 장점이 있고 외관상으로 아주 돋보이며 먼 훗날 문화유산 가치로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어서 묘소 봉축과 묘역확장으로 석축을 쌓았고, 주위에 우거진 잡목도

베어서 묘역을 잘 정비하였다. 이와 같이 차질 없이 완성됨에 따라 종회 발전과 후손들의 돈목을 도모하고자 총회 겸 화수회를 갖게 되었다.

그간 회장 책무를 맡아 혁신적인 추진력을 발휘하여 전무후무한 큰 위선사업을 한 대석회장의 노고에 참석한 종원 모두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경종회가 더욱 활성화 할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오늘부로 임기만료로 大碩會長이 물러나고 새회장에 28世 相源(상원)씨가 선출되고, 본종회를 이끌어갈 새임원이 구성되었다. 이것으로 공식행사를 마치고 바로 점심식사와 준비된 음식을 함께 하면서 오랫동안 나누지 못한 정담과 옛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게 되어 이 자리가 한층 빛나 보였다.



居昌宗親會

定期總會

總務 29世 卞仁燮

陝川宗親會

定期總會 開催 海印寺 용문폭포에서



변씨합천군 종친회(會長 卞乙圃)는 토요일인 5월 20일 오전 11시 가야면 해인사 용문폭포 팔각정 광장에서 변을유 종친회장 변종철 전교육위원, 변광수PD, 변용규, 변선표, 변상곤, 변태근부회장 변연수, 변창수감사, 변종철총무, 변종옥청년회장 등 군내 변씨종친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정기총회 및 야외회를 개최하

였다. 근화학원 이사장인 변을유 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부지역 종친들의 주선으로 유서깊은 해인사의 용문폭포 광장에서 종친회를 개최함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일족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빈다고 말했다.

(편집실)

2000년 2월 16일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영언재에서 거창 입향조이신 춘당공 5세손(통정대부 정삼품 관사현부시평) 龜山公(구산공) 諱 壁(벽)의 자손 80여명이 참석하여 거창 종친회를 성대히 거행되었다.

동 종친회 회장 형식씨는 인사말에서 밀양변씨로 위관하신 시조 휘 高迪(고적)후 4대 묘소가 실전되어 후손들은 수십년을 밀양변씨 시원지 밀양군을 탐문탐색으로 변정승골이라는 전설이 있어 수차 탐색하여 초동면에서 사대부묘로 추정되는 함묘와 고분 수기를 발견하였다.

인근 주민들과 전 밀양문화원장께서도 변씨 묘라고 구전되어 있다고 했으며 인근산에서 고분전면들에 현감 변

모라는 글을 새겨 함묘도 발견했으니 우리 선조의 묘라는 것을 직감했다.

밀양변씨 후손이면 누구나 누적된 소망일 것이니 현지에 묘 복원이 안되면 제단이라도 봉안하도록 청도 문중을 비롯 부친, 전국각지에 산거하시는 우리 모든 후손들은 협심육력하여 실현된 시조묘를 발견했으니 복원사업에 앞서자고 호소했다. 구산공 휘 벽을 향사하는 영언재는 1735년(영조 29년)에 참건하였으나 그간 풍상으로 퇴락하고 협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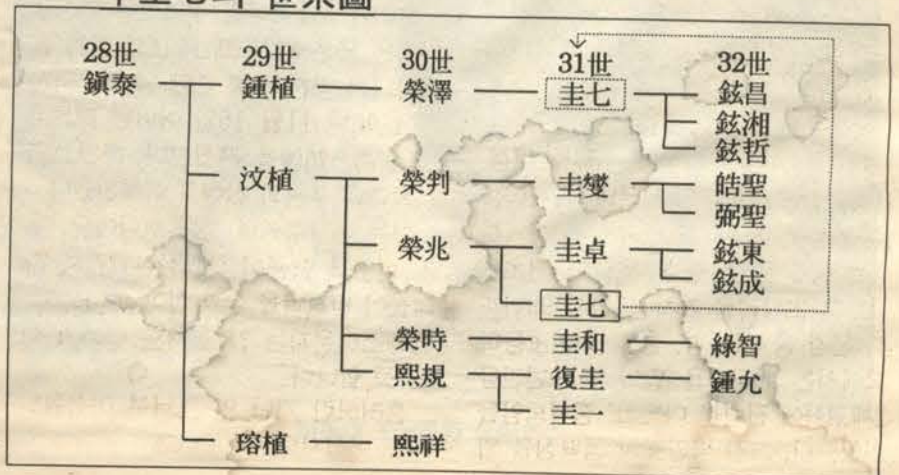
서기 1995년 을해 10월 후손들의 헌성금 2억여원으로 중건 하였다. 거창을 위시한 전국에 산거하고 있는 후손들은 1000여세대에 달한다고 한다.

卞圭七의 孝行 兩慕亭



卞圭七氏는 아래 世系圖를 보듯이 祖父이신 諱 汝植의 맏아들 諱 鍾植의 아들 諱 榮澤의 아들로 入譜됨으로서 生母이신 河濱李氏와 養母이신 坡平尹氏 두 어머니를 뉘시는 처지가 되었으며 이에 어긋남이 없이 孝誠을 다하였고 지난 96년 두 어머니를 같이 기리는 兩慕亭을 세우시니 萬人이 우러러 칭송하였고 그가 平生을 몸담아온 LG그룹의 명예회장이신 具滋暉氏가 縣板文을 써 주셨으니 이 또한 本人의 榮光이라 하겠다. 그후 LG그룹의 現會長이신 具本茂씨는 石塔을 세워주시니 거듭난 慶事라 할 것이다.

卞圭七의 世系圖



馬山·昌原宗親會 任員

顧問 변이식 055-243-5027	변종택 055-242-8617
" 변재정 055-285-0457	" 변영 055-223-5881
會長 변부원 055-299-4000	" 변종수 055-221-3901
副會長 변선섭 055-271-5357	" 변해룡 055-583-3245
" 변재규 055-286-2251	監事 변재오 055-263-6142
" 변재일 055-271-5278	" 변복도 055-262-0353
" 변재웅 055-233-2947	事務局長 변재엽 055-244-7770
" 변정섭 055-245-3045	

義城地域

白隱公 諱 世琳의 行蹟에 對하여

32世 卞 泳 一



32世 卞泳一

白隱公 諱 世琳의 字는 琢女(탁녀)요 號는 白隱인데 貫行은 草溪이며 생은 서기1564년 명종19 갑자년에 경북 의성군 구천면 내산동에서 출생하였으며, 龜川書院(白川書院)에 배향되어 있고, 의성군 안계면 위양동에 효자가 있는 효자 卞勇의 6세손이다. 백은공은 임란이 일어남에 강산은 초토화되고 백성은 모두가 구명도산 피난길 떠나기가 바빴다.

그러나 백은공은 의연히 자진하여

의병 수백명을 모집하여 조령전투(현 문경 재재)에서 적과 마주치며 평소 장건하시고, 지략과 용맹이 출중하신 공은 수천명 적군에 서슴없이 돌진하여, 적의 군마를 빼앗아 타고 달리며 종횡무진으로 무찌르니 마침내 적은 궤멸하고, 조령전투에 대승하니 절의가 실로 장하다 하여 도신 계달하니 나라에서 훈복에 신하고, 자손은 만세에 안락을 누리라 하여 훈련침정에 가자되었다.

서기1635년 인조13년 계해에 졸하니 향년 72세이다. 유택은 구천면 백운산 수좌이다. 공의 문적은 사재훈록(事載勳錄) 달남문상(達南門上)에 적(籍)이 있고 소재비안읍지(昭載比安邑誌) 및 의성군지에 문적(文籍)이 있으나 증직(贈職)도 왕성(王聲)같은데, 행적을 이제서야 소개하고 선행과 전과의 전설은 많이 있으나 문적에 기록된 부분만이 소고(小考)하오니 한스럽다.



◇白隱公 墓所全景

卞在鶴校長의 停年退任에 아들이 드리는 詩

만우 卞在鶴(30世)씨는 4살 때 아버님을 여위고 편모슬하에서 굳건히 자라고 안개중합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군복무를 마치고 61년 8월 오산초등학교를 선두로, 동천, 구천, 위성, 용호, 삼분교에서 의성군내 총동학생을 정성껏 가르치고, 86년서 96년까지는 성주 용암, 봉양, 용호, 구천초등학교의 교감직을 거쳐 96년서 99년까지 문경 동로, 신평, 삼분, 다인초등학교에서는 교장직을 맡아 근40년간을 2세교육에 전력을 다 하고 정년퇴임을 하였으니, 그간 국민포장 동백장을 위

시해서 13회의 포상을 받았다.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으니 가정의 화목은 물론 婦人 韓山李氏와 함께 홀 어머니께 받친 孝誠 또한 남달리 극진하여 96년 11월 15일 어머님 咸昌金氏 孝烈行蹟碑를 세웠으니, 卞氏比安宗親會의 후원과 참여로 이룩하였다.

이는 변재학씨의 생의 보람이요, 우리 변문의 영광이기에 정년퇴임시 자녀들이 받친글을 함께 실어 본다. 영광스러운지는 감히 저도 알수가 있는 듯 합니다.

흘러버린 지난 일을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십시오.

◎ 모셔 드리는 글

아버지 -
오늘까지의 지난 많은 나날들
참으로 길고도
그러면서도 잘라로 흘러버린 유수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시작이 어제인 듯 하시더니
별서 예 서서 작별을 고하시다니?
이른새벽 자전거를 타고 문밖을 나서
시는 그때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데
별서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퇴임을 맞
이 합니다.

아버지
간밤에 분 바람이 유난히도 스산하게
느껴진 것은
오늘 예 서서 아버지의 퇴임송별을 맞
는 연유에선가 봅니다.
많은 분들의 축복이 제겐 어이하여 이
토록 슬프게만 느껴집니까?

제가 이리할진데
앞에 선 아버지의 마음이야 또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슬픔만이 전부가 아님은
아버지의 손길과 함께 인생의 초석을 다져
지금은 큰 모습으로 서신 제자님들의
흔적 많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에 한부분을 차지한다는데,
더구나 그들의 빈 구석들을
채워 완성된 인격으로 다듬으신다는게
얼마나 어렵고도

아버지 -
결에는 늘 인정어린 이웃분들이 있고
또한 한해가 저물적엔 잊지 않고 소식
주시는 제자분들이 있고
아직도 많은 부분을 함께 상의하시며
동행하시는 여러 동료분들이 있음은



30世 卞在鶴

차라리 자식인 제겐 또다른 삶의 지침
이 됩니다.
이렇듯 아버진 어김없는 우리 모두의
스승 이셨습니다.

이 자리에 선 자식의 마음엔 불현듯
세상이 두렵게도 느껴지지만
오히려 감당 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
넘침은
이룩하신 지난날의 여러 업적에서 만
이 아니라
아버지의 또 다른 한 생의 시작이 기
쁘고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입니다.

못다하신 교단의 사랑은
훌륭히 성장하신 제자분들의 몫으로
남기시고
새로운 새길은 아버지만을 위한 그런
시간으로 엮으십시오
부디 온전한 주 되소서.....
1999. 8.
아버님의 퇴임을 두고
아이들 드림
(편집실)



◇停年退任式 光景

卞正奎君 稅務士 首席合格 변종성군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제36회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354名中 漢陽大學校 재학중인 卞正奎
君이 평균 76.44점을 획득하여 수석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합천군 초계읍에 살고 있는 大宗會
理事 卞判圭氏의 장남 변종성군이 금
년도 시행한 제32회 공인회계사 시험
에 합격의 영광을 얻었다.

高敞宗親會

壺巖 仁川先生 春享祭을 지내다.



大宗會 總務 卞仁燮

지난 음력 3월5일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사남리의 호암 인천선생 묘소와 제단에서 후손 30여명이 참석하여 춘향제를 올렸다. 인천선생은 이퇴계, 김하서 문하에서 성리학, 역학 및 예경을 탐구하여 대학자로 추앙 받으신 분이다.

고창의 월계서원에서 제향을 지냈으나 전란으로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묘소에서 춘향제를 지내고 있다.



◇壺巖 仁川先生 墓所

晋州宗親會

진주종친회는 회장 증찬씨, 부회장에 재희씨, 총무 갑규씨로 개선했다.

晋州宗親會 任員名單

- 會 長 卞鍾瓚(변종찬) 26세
- 副會長 卞在熙(변재희) 30세
- 總 務 卞甲圭(변갑규) 26세

- 監 事 卞熙在(변희재) 30세
- 理 事 卞吉雄(변길웅) 25세
- 卞東春(변동춘) 28세
- 卞鍾敏(변종민) 26세
- 卞大元(변대원) 30세
- 卞東根(변동근) 28세

上林亭 懸板 글씨 書藝家 卞和圭氏가 쓰다



25世 卞和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유원지에 위치한 상림정은 2000년 5월중순에 신축 낙성하였는데 낙성식에는 군내 각기관장과 많은 주민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현관은 대중회 부회장이신 凡山 卞和圭씨께서 썼다.



상림정

(21면으로 계속)

卞台龍의 大宗會 寄與

大邱宗親會副會長



卞 台 龍

台龍부회장은 1966년 육군하사관학교 5기로 졸업하고 50사단으로 전입되어 人事참모 卞경흠 중령의 각별한 도움을 받은 血緣에 감동되어 爲宗事業을 할려고 결심하고 군에서 제대한 후에 卞氏 대구종친회에 몸을 담게 되었

으며 대구종친회 발전을 위해 두달간 대구에 살고 있는 宗人들을 전화로 확인 宗人名부를 작성하였으며 1997년도 永慕齋 卞氏始祖公 향사때 식탁 200점(30만원)을 기증하였고 1998년도 영모재 변씨시종공 향사때는 타을 350장(70만원)을 기증하였다.

1999년도에는 영모재 엠프시설(300만원)을 설치하여 大宗會에서 공로패를 받았는데 本人은 조상을 섬기는 음덕으로 가정과 子女들이 조상의 後光을 받아 成功한다고 믿고 있으며 슬하에 장녀 경애는 99년 大邱市 中等教師 임용고시에 합격했으며 아들 성기는 영남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중 성적이 우수하여 卞門을 빛내고 있다.

祝 宗報發展

大邱宗親會

- 顧問 卞泰寬 卞榮守 卞三龍 卞영
- 會 長
- 副會長 卞泰龍 卞廣錄 卞鍾三 卞川根
- 監 事 卞相喆 卞鍾喆
- 總 務 卞相德

- " 卞東洙 (27세) 043-213-9689
- 監 事 卞鍾後(26세) 043-265-1737
- " 卞禮圭 (25세) 043-265-0758
- 總 務 卞鍾明(26세) 043-265-0486

陝川宗親會

- 顧問 변남규 055-932-2888
- " 상덕 055-931-2632
- " 종철 055-932-0025
- " 학동 055-932-1672
- " 종인 055-932-2609
- 會 長 을유 055-931-0024
- 副會長 용규 055-931-2109
- " 종섭 055-932-9012
- " 선표 055-932-7840
- " 쌍곤 055-932-2280
- 監 事 연수 055-932-2530
- " 창수 055-932-1862
- 總 務 종철 055-934-0722

蔚山宗親會

- 會 長 卞澈宗
- 副會長 卞영수 卞윤백
- 監 事 卞在根
- 總 務 卞정의
- ※大宗會理事名單

忠南北宗親會

- 會 長 卞相煥(28세) 043-211-5372
- 副會長 卞正洙(27세) 043-265-6439
- " 卞在浩 (30세) 043-255-2700

27世 卞在鶴

정북이재민구친회 卞宗親會
전화 (054) 861-2101
H.P.O 11-555-9287

27世 卞漢洙

서울시구로구의원
서울특별시구로구 동동 178-17
전화 (02) 684-11257

30世 卞在鋼

녹원꽃화원 사장
포항종친회 회장
포항시북구 송림면 관동리
전화 054-1246-0742

始祖公享祀祭官名單

陰曆 10月 1日(1993年~2000年)

年度 祭官	1993年 癸酉	1994年 甲戌	1995年 乙亥	1996年 丙子	1997年 丁丑	1998年 戊寅	1999年 乙卯	2000年 庚辰
初獻官	萬燮	元圭	鍾奭	相熙	亨植	鍾喆	圭燮	益圭
亞獻官	泰寬	相熙	源祥	亨植	大碩	宗燮	善杓	榮坤
終獻官	鍾烈	源祥	根洙	鍾哲	好寬	顯秀	相鉉	三龍
執禮	元圭	在昌	在昌	鍾烈	在昌	泳一	在昌	在昌
大祝	在昌	和圭	相熙	源祥	和圭	和圭	元圭	源祥
贊引	鍾燮	鎮燮	相鉉	慶浩	鍾哲	萬洙	鍾哲	鍾哲
贊唱	相熙	榮燮	榮文	致煥	鍾烈	亮燮	鍾昊	慶浩
奉香	在會	鴻燮	三龍	良洙	萬洙	尙圭	正佑	萬洙
奉爐	在熙	慶浩	連相	秀焱	文欽	仁燮	茂成	鍾得
司尊	致煥	四鳳	哲洙	鍾權	慶浩	永淳	健植	在鶴
奉爵	三龍	鍾燮	明鎬	在運	宗燮	鍾烈	慶浩	相培
尊爵	相鉉	在權	章燮	萬洙	容圭	奉植	相龍	相鉉
山神 祭官								
獻官	源祥	濬	和圭	秀一	昌熙	文洙	相浩	健植
祝官	濬	正淳	相坤	和圭	致煥	源祥	源祥	良洙

烈女賞推薦文

姓名 丁明球(故 卞五燮 夫人)

1935年 9月20日生

上記者 丁明球 女史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義城坊 사곡에서 태어난 1955년 20살의 나이로 산설고 낫설은 우리 卞門인 五燮씨에게로 시집을 왔었다.

그때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웠던 시절 新婚의 달콤한 사랑도 즐거웠겠지만 그것보다는 언제나 눈을 뜨면 한끼의 끼니거리에 걱정이 앞서는 그 배곯았던 시절 例外없이 女史의 家庭에도 가난의 시련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워낙 性稟이 착한 女史께서는 불평 한마디 없이 나에게 주어진 宿命이라 生覺하고 어린 시동생을 키우다시피 하며 가난을 克復하며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 중에서도 시부모

에 對한 孝心은 至極하였다. 시집살이에 차츰 익숙하여 살아가던 어느날 시집온지 1년도 채 안되어 남편의 徵兵 召集令狀이 나왔다. 그때 女史께서는 妊身 8개월의 무거운 몸이었다. 國防의 義務를 다하기 위하여 召集에 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에 男便마저 軍에 보내고 나니 살아갈 길이 漠漠하고 눈앞이 캄캄했다.

男便만을 믿고 依持하며 살아가야 할 時點에 이 地境이 되고 보니 온갖 苦痛과 試鍊은 勿論이요, 孤獨을 反芻하며 살아야만 하는 農村의 生活, 그러나 軍에간 男便이 除隊하고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차츰 집안 살림에 재미를 붙이고 살아가던 어느날

꿈에서도 想想할 수도 없는 男便의 病死 通知와 함께 幽骨이 到着한 것이다. 靑天霹靂과도 같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남들보다 健康하던 男便이 누구보다도 身體健長하던 男便이 病死라니 아무리 生覺해봐도 疑心이 가시지 않았다. 病死라면 事前에 집으로 連絡이 있어야 했고, 病院에 入院을 했을 것인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疑問이 생긴 女史께서는 다음날 어린 것을 등에 업고 男便이 勤務했던 軍隊를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그러나 部隊에서는 民間人 出入禁止라는 미명하에 部隊長을 만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쉬쉬하며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얼마의 歲月이 지난 後에야 男便은 橋梁工事 중 墜落死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歲月이 많이 흘러 事實을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 人間의 죽음을 바꾸어 놓은 韓國의 實情이다. 靑春에 男便을 祖國에 바치고도 한푼의 연금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서글픈 運命을 갖고도 모든 것을 체념하고 오직 子息을 爲해 靑春을 불살랐다. 꽃다운 靑春에

혼자되고 보니 再嫁의 誘惑도 많았다. 젊디 젊은 한 人間이 어찌 異性이 그립지 않으랴. 誘惑의 손길은 繼續되었으나 한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로지 子息만을 爲하여 온갖 精誠을 다하였다. 시부모를 섬기며 추호도 게을리함이 없었고 갖은 苦生을 하면서도 家庭만을 生覺하며 自己 한 몸 돌보지 않으니 周圍 사람들은 요즈음 저런 孝婦가 어디에 있겠냐며 稱讚이 藉藉하니 比安鄕校에서 孝婦賞을 내렸다.

1980년에는 義城郡守賞, 1984년에는 保健社會部長官賞을 受賞하였다. 시부모 兩偉分 모두 世上을 떠나니 喪禮를 마치고 시동생 장가 보내고 得男을 하니 養子로 삼고 여생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 아들이 淸州大學에 다니고 있어 淸州에 방을 얻어 아들 工夫하는데 온갖 精誠을 다하여 자식 뒷바라지에 誠과 熱을 다하고 있다. 우리 卞門은 賞罰條項이 있어 이런 어질고 착한 女史에게 烈女賞을 授與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生覺에 삼가 推薦하는 것이오니 좋은 結果 있으시기 바랍니다.

추천인 30世 卞在昌

소나무 그림

慧岩 卞甲洙 畫伯



27世 卞甲洙

화백(畫伯)은 독자적인 창작기법으로 거친 풍우에도 흔들림이 없고, 춘하추동 변치 않는 소나무를 벗 삼아 그 특유의 청청한 기상과 고결한 기품을 표현코저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一族인 해암화백을 소개합니다. 1999년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한국일보사 후원으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소재 백상기념관에서 불우 이웃돕기 해암 변갑수 소나무작품 초대전을 가졌습니다.

해암 화백은 경남 합천 출생으로 27세이며 화실을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성구사 경내의 도산서원에 화실을 두고 창작활동에 열중하고 있다.

(편집실)

◆ 양역

- 경상남도 합천 출생
- 한국일보 초대전(창원 KBS 전시실)
- 한국B.B.S.경남연맹초대전(마산동서화랑)
- 한국일보 초대전(서울 백상기념관)
- 개인전 및 단체전 다수
- 한국 미술 대상전 초대작가 소나무그림
- 국제미술대전 초대작가
- 배달민족 서예대전 초대작가

◆ 연락처 화실: ☎ 051-271-7818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389

자택: ☎ 051-932-0231

휴대폰: 011-9503-0231



25世 卞鍾九

전 (주)유현산업 대표이사
휴대폰 011-338-1346

벤처 企業의 先驅者

휴맥스 代表 卞大圭



31世 卞大圭

변대규 (31세)사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과를 졸업한 계측공학 박사로서 1989년도 벤처기업인 휴맥스社를 창업하고 디지털 방송 수신장치인 디지털 셋톱박스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로 널리 알려져 지난 6월 27일자 한국경제신문 4면에 소개된 바 기운 일족의 셋톱박스 기사를 보고 전제하는 바입니다.(편집실)

「휴맥스의 변대규 대표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회사를 꾸려가는 최고경영자다.

그의 얼굴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전형적인 얼굴이 아니다. 차라리 연구실의 학자 같다. 그는 "이제 경영자도 공부하는 사람만이 살아 남는다"고 말한다. 사회와 경제구조가 정보지식기반으로 바뀌면서 분석하고 책대로 경영하려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다.

그의 이런 공부하는 자세는 철저한 시장분석과 적절한 전략구사로 이어졌고 디지털 셋톱 박스 하나로 ttP시장에 우뚝 설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제너럴 인스트루먼트(General Instrument) 사이언티피 애트랜타(Scientific atlanta) 필립스(Philps)등 거대한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디지털 셋톱 박스 시장에 진출해 틈새 시장을 찾아내고 이를 발판으로 이제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페이지 기업이 됐다.

휴맥스는 디지털 방송수신장치인 디지털 셋톱박스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시장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기업이다.생산량을 전량 수출하는 휴맥스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유통시장 물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지난 1.4분기 순이익이 98억원으로 4전8백% 급증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1천3백억원에 경상이익이 8백억원이다. 작년 대비 각각 1백40% 늘어난 것이다.

변대규 씨는 "2003년까지 매출액 6천5백억원, 영업이익2조원의 세계 3대 디지털 셋톱박스 제조업체로 나서게겠다."고 밝혔다.

변대표는 휴맥스의 핵심역량을 연구개발(R D)인력과해외네트워크 구축으로 이루어진 마케팅능력을 꼽는다. 휴맥스의 기술력은 외국에서도 인정한다. 휴맥스부품을 쓰는 필립스직원이 "휴맥스제품이 소니제품보다 나은 것 같다고고 전해주더라"고 변 대표는 소개했다.

이런 기술력은 바탕으로 변 대표는 휴맥스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변 대표는 "매출액이 많고 기술만 좋다고 바로 글로벌 기업은 아니다"고 말한다.

"외국사람이 한국에 와서 근무해도 성공할수 있다면 그 기업이 바로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은 업무가 매뉴얼화됐으나 한국기업은 안면으로 일을 해결하려 한다. 문제 해결 과정이 매뉴얼화돼야 글로벌기업이 된다."는 것이 변대표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요즘 기업문화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작년까지 그도 직원 한 명씩을 일일이 만나는 맨투맨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요즘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하는 일에 골몰해있다. 글로벌기업의 토양이 갖추기 위해서다.

안상욱 기자 sangwook@hankyung.com



의학박사
27世 卞社洙

전화 062-1675-4250
전남대학교산부인과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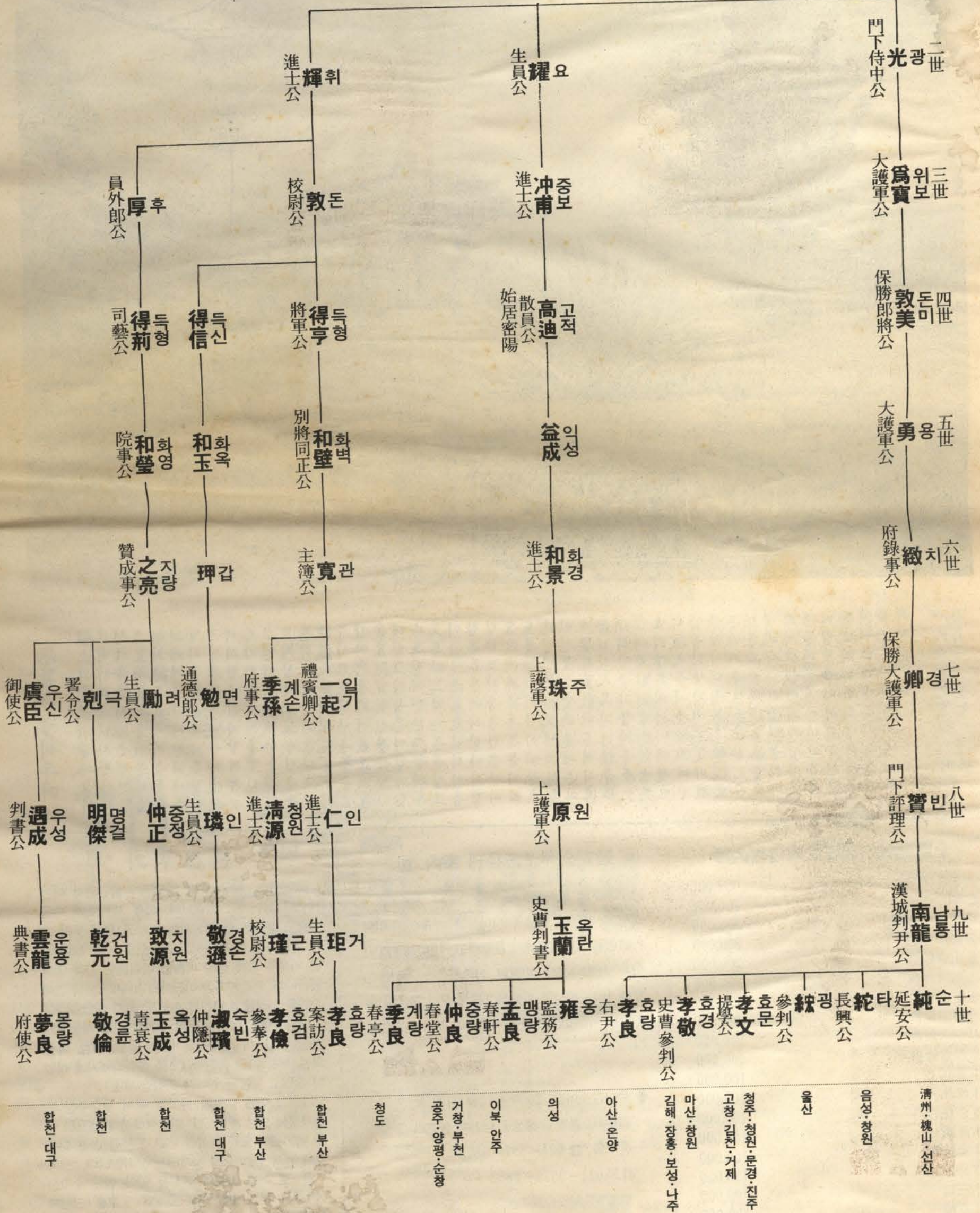
언론학박사
28世 卞東炫

전화 062-1530-2671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卞氏世系表 (西紀 一九八七年 丁卯譜參照)

草溪陽密

祖始 庭實 文烈公 八溪君 西紀九八五年 高麗成宗時 門下侍中





乙亥夏
上南具滋暲

兩慕亭

兩慕亭

兩慕亭을 세우며

祖上의 靈魂이 살아 숨쉬고
내가 태어나 자란 이 터
전에 솟아올라 있는 정간함
으로 兩慕亭을 세운다
의 緣으로 내게는 두 분
남아 주신 분과 시나리
주신 養母님이 시나리
에 대한 정이야말로 생
하락만 일찌기 할로 되
으면 서도 毅然한 氣品
로 지성 것 媳父 母님
禮儀 凡節에 模範을 보
주시고 또 한나를 養子
愛로 訓育하시어 正과
대한 그 育하신 養母님
수룩질어 만간 다 들이
그루의 兩慕亭이 나심
이곳을 兩慕亭이라 이름
함은 두 분에 대한 이
정한 그 育하신 養母님
오대 孫을 두 분을 기
도록 하기로 위함이다
北견에는 祖父의 故友
이신 崔山全 風遂 孫과
沙梁 崔 薰 敦 行 蹟을
母님 人品과 行蹟을
頌하신 彫刻家 鄭茂吉
그대 彫刻家 鄭茂吉
생의 作品에 담아서
니 後人들이 先妣의
삼을 되새김에 不足
을 것이 다 兩慕亭 懸
은 내 平生 奉職한 長
그름의 具 滋暲 名譽會
님께서 念願을 해
리시고 親히 女 子
孫들과 同년 자들과
어린 것들이 女 子
先妣의 아름다운 行蹟
기리고 본받는 마음
바라다 삼아 주기를
不肖子 圭七 謹識
一九九五(乙亥)年八月

全國地域宗親會宗報協贊內譯

서울경기宗親會	600,000
仁川宗親會	200,000
忠南北宗親會	200,000
大邱宗親會	200,000
釜山宗親會	200,000
馬昌宗親會	200,000
울산宗親會	200,000
거창宗親會	200,000
진주宗親會	100,000
포항宗親會	100,000
卞鍾九	100,000
卞漢洙	100,000
卞宗柱(燮)	100,000
卞社洙	100,000
卞東炫	100,000
卞泳一	50,000
卞在鶴	100,000
卞亨植	100,000

延安公洲派譜發刊 案內

草溪卞氏 延安公派는 우리 卞門의 大宗派로서
그간에 발행된 族譜의 미비점과 미흡한 先祖의
行蹟등을 王朝實錄에서 拔萃하고, 1987年(丁卯)
이후 10餘年間に 발생한 가족사항을 수집하여
보다 알찬 과보를 발행하고자 하오니, 연안공파
증원은 빠짐없이 수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수단접수마감: 2000년 12월 31일
접수처: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활초리 205
전 화: ☎ 031-357-5815
H.P 011-9929-5852
草溪卞氏延安公派宗親會
會長 卞 相 鉉

편집후기

92년 1월 卞氏大宗報 創刊號가 발간된지 어언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15호에 수록
할 원고를 기다리며 편집을 마치고 보니 우리 卞
門의 歷史의 한 페이지가 기록으로 남게 되어 기
쁜 마음과 함께 웬지 미흡한 아쉬움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편집기획을 이리저리 바꾸다 보니 그에
수반된 어려움과 시간적 손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발간비용은 거의가 전국지역총친회(서울경기,
인천, 부산, 대구 충남북, 마창, 울산, 거창, 합천,
의성, 부천등)의 협찬성금으로 충당되었기에 더없이
고맙고 보람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宗報의 원고를 애써 보내주신 분
들께 진심으로 感謝드립니다. 정해진 紙面으로 인
해 이번號에 모든 원고를 收錄치 못한 것은 다음
호에 게재하겠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증보의 편집을 맡아 함께 수고하
여 주신 相鉉·東錫·在運·良洙의 노고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주간)